

# 징기스칸의 戰略에 관한 分析

金 忠 英\*

## 〈目 次〉

1. 序 論
2.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환경
3. 몽골족의 군사적 생활 습성
4. 몽골군의 군사조직, 무기 및 전술
5. 중도(中都, 일명 燕京)지역 전투
6. 서아시아 지역 전투
7. 西夏地域 전투와 징기스칸의 유언
8. 징기스칸의 전투결과 분석
9. 결 론

## 要 約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 기마병단을 이끌고 유라시아 대륙 동서남을 중횡무진 진격하여 저항하는 적을 단숨에 격퇴시킨 전략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기록은 위구르(Ugurs), 중국,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의 역사 문서와 유럽인의 여행자들의 기록에 드문드문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긴 사람들은 모두 징기스칸의 반대편 사람들이어서 징기스칸을 침략자로 보고 기록하여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잔인한 정복자로 기록에 남기고 있다.

1995년 말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세계사에서 지난 1천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았다. 현대에 이르러 징기스칸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님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징기스칸이 참여한 주요 전투를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분석하여, 징기스칸은 기동성의 이점을 살려 적의 주력이 있는 곳을 우회하여 적의 배후를 공격하는 천재적인 전술 및 전략가임과 동시에 현실에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인물을 밝힌다. 그래서 현실에 잘 적응하기 위해 그 지역의 현명한 사람을 우대하고 그 지역 종교의 자유를 주고 상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또한 몽골인의 부족함을 다른 인종의 우수한 사람을 발탁하여 우대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징기스칸은 자기와 자기 민족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민족의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지장(智將)임과 동시에 명장(明將: 현명한 장군)이었음을 본 연구는 밝힌다.

\* 教授, 運營分析學(OR)

## 1 序 論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을 살펴보면 서양 국가들은 가톨릭 체제,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 체제 그리고 동양 국가들은 불교 및 유교 체제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몽골은 생존을 위해 부족간 투쟁이 극심했다. 징기스칸은 먼저 악전고투 끝에 몽골족을 통합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 서하(西夏)를 다독거리고 금나라를 남쪽으로 몰고 오토라르 성주가 대상을 죽이고 물품을 약탈하자 이를 징계하기 위해 서정(西征) 실에 올라 7여년에 걸쳐서 호라즘 왕국을 초토화하고 배반한 서하를 치는 중에 병사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금나라를 정벌하는 전략을 알려주었고 그 뒤 그의 아들 오고타이와 투루이는 징기스칸의 전략을 따라 금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 기마병단을 이끌고 유라시아 대륙 동서남을 종횡무진 진격하여 저항하는 적을 단숨에 격퇴시킨 전략에 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글을 몰랐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기록은 위구르(Ugurs), 중국,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의 역사 문서와 유럽인의 여행자들의 기록에 드문드문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긴 사람들은 모두 징기스칸의 반대편 사람들이어서 징기스칸을 침략자로 보고 기록하여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잔인한 정복자로 기록에 남기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서하를 정벌하고 금나라 중도(中都 또는 燕京)를 점령하고, 호라즘왕국을 정복하여 유사이래 영토가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몽골인의 저력은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었던 징기스칸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환경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보면 중국에는 907년에 당(唐)나라가 망하고 오대(五代)를 거쳐서 960년에 송(宋)나라가 건국되었다. 만주 지역에는 916년에 거란족이 요(遼)를 건국하여 926년에 발

해를 떨하고 중국의 연운 16주(燕雲16州)를 장악했었다. 1115년 금(金)나라가 일어나 요를 떨하고 1127년에 북송(北宋)을 떨하였다. 그래서 송나라는 임안(臨安, 지금 南京)에 도읍하여 남송(南宋) 정권을 수립했다. 한반도에서는 918년에 고려가 일어나 935년에 신라를 통합했다. 중국 서쪽에는 1038년에 당구트족(黨項族)의 이원호(李元昊)가 서하(西夏)를 건국했다. 그래서 1150년 이후 고려, 금, 송, 그리고 서하가 서로 화친하면서 평화공존을 누리고 있었다.

이슬람 제국은 1031년에 코르도바의 우마이야조가 멸망하고, 바그다드의 압바스조는 분열되어 안정을 잃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1037년 셀즈크조가 일시 강성했으나 명재상 니삼(Nizam al-Maulk, ?~1092)이 암살된 후 갑자기 쇠약해 졌다.

유럽에서 911년에서 987년 사이에 노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이동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 이슬람(사라센)제국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마자르족의 침입을 중지시킨 오토1세(Otto I, der Grosse, 재위 936~973)가 신성로마제국을 세워 서유럽을 일부 통일하여 로마 교황과 더불어 유럽을 통치하여 가톨릭 체제하에 중세봉건제도로 안주하고 있었다. 특히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 재위 1088~1099)는 클레르몽(Clermont)에서 십자군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1099년에서 1270년에 걸쳐서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졌으나 이것은 못사는 유럽인들이 잘사는 이슬람 지역을 약탈하려는 전쟁으로 변모했다. 13세기경 세계 정세를 요약하면 동서양에서 강력한 국가는 없었고 큰 나라들은 가톨릭, 이슬람, 유교 및 불교 체제하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쇠락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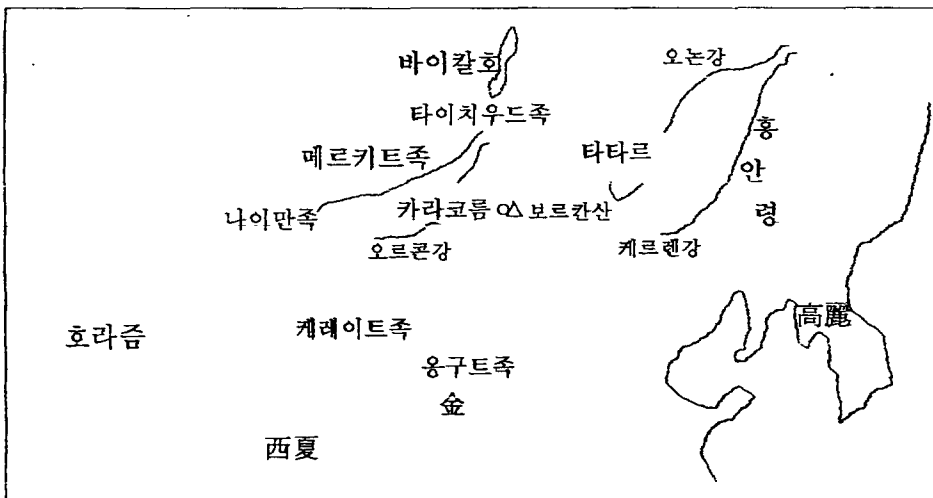
이렇게 동서양에서 분열과 불안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몽골은 부족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부르치군족인 예스게이는 메르키트족으로부터 호에른을 납치해서 결혼하였다. 이때 예스게이에게는 베테르와 벨구테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호에른은 테무진(후에 징기스칸), 카사르, 테무게(후에 오토치킨)를 낳았다. 징기스칸이 9살 되는 해에 아버지는 타타르인에게 살해되었다.

징기스칸의 이복형 베테르와 벨구테이<sup>1)</sup>가 그와 친동생 카사르가 잡은 물고기를 빼앗고 다음에 다시 잡은 새를 빼앗아 가자 활 잘 쏘는 동생 카사르와 합세하여 이복형 베테르를 죽여 버렸다.<sup>2)</sup> 징기스칸 가족은 타이추드족 습격을 받아 징기스칸이 포로가 되었으나 소르칸 시라의 도움으로 살아 날 수 있었다. 또한 담황색 거새마 8마리를 도둑맞자, 친구 보올추의 도움을 받아 도둑을 추격하여 찾았다.<sup>3)</sup> 징기스칸의 부인 보르테는 메르키트족에 납치당했으나 징기스칸은 의복 아키텔 케레이트왕 트으릴 옹칸과 의형제 차무칸의 도움으로 다시 보르테를 찾았다.<sup>4)</sup> 그래서 말 아들 주치는 누구 아들인지 본경치 알았다.

징기스칸이 생존을 위해 동지를 모으고 징기스칸 어머니는 어린 고아들을 양아들로 키웠다. 징기스칸의 세력이 커지자 의형제를 맺은 자무카는 다른 종족의 힘을 빌리어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한때 의붓아버지 토오릴 옹간도 징기스칸의 반대편에 섰다가 죽음을 당했다.

서기 1197년 메르키트(Merkid, 蔑里吉)족과 싸워 이기고, 서기 1199년에 나이만(Naiman, 乃蠻)족과 싸워 승리했다. 서기 1201년에 타이치우드(泰赤烏)족을 정벌했으나 죽을 고비를 체르메의 도움으로 살았다.

1202년에 타타르(孛婁)족 그리고 서기 1203년에 케레이트(Kereyid, 克烈)족을 정복하여 동몽골의 패권을 장악했다. 부족전쟁을 하는 동안 징기스칸의 어머니 호에른은 타이추드족 전쟁고아 쿠쿠추<sup>5)</sup> 메르키트족의 고아 쿠추<sup>6)</sup>, 타타르족의 고아 시키 쿠두크<sup>7)</sup>, 그리고 주루킨족의 고아 보로콜<sup>8)</sup>을 양자로 우수한 장군으로 길러 징기스칸을 도우도록 했다.<sup>9)</sup> 징기스칸도 인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유리안족(순록부족)에서 수부타이<sup>10)</sup>, 아를라드족에서 보올추<sup>11)</sup>, 바를다스족에서 쿠빌라이<sup>12)</sup>와 쿠두스 형제 그리고 타이추드족에서 체베<sup>13)</sup> 등 타부족의 용사들을 등용하여<sup>14)</sup> 전력을 강화했다.



<그림> 징기스칸이 통일하기전 몽골 부족

다시 징기스칸은 1204년에 나이만족과 1205년에 메르키트족을 완전히 정복하여 서몽골의 패권도 장악하여 몽골을 통일하고 서기 1206년에 가장 위대한(몽골말로 징) 최고의 인물(몽골말

로 기스) 뜻을 합쳐 징기스칸(칸은 몽골말로 군주, 왕을 뜻한다)으로 즉위하였다.

징기스칸은 광활한 사막과 초원 지대에서 부족간의 싸움을 하면서 사전에 정찰조를 통해 적정을 살피고 조심스런 야간 행군을 하여 적의 배후를 급습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포위 전술을 구사하여 적을 철저히 격파하는 전투 경험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 지역의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터득하였다.

요약하면 13세기에 서양은 가톨릭 체제, 중동은 이슬람 체제 그리고 동양은 유교 및 불교 체제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몽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부족간 투쟁이 극심했다. 징기스칸은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성장하였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배반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탈취하거나 도둑질하는 짓은 철저히 응징했다. 그는 금나라가 조공을 강요하자 금나라를 치고 호라즘국이 대상을 약탈하고 사신을 죽이자 서정(西征)을 했고 서하왕이 배반하자 서하를 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 먼저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토의해보기로 한다.

### 3. 몽골족의 군사적 생활 습성

사기(史記)의 흉노 열전(匈奴列傳)에 보면 “흉노(匈奴)의 풍습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유즙(乳汁)을 마시며 그 가축을 입으며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군신관계(君臣關係)가 간이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그 처를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절대로 가계가 단절되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춥고 건조한 지방에 살아서 전염병도 없어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하여 타지역으로 약탈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 남쪽 중국을 압박하거나 서쪽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된다.<sup>15)</sup>

징기스칸 시대에 몽골족은 인구가 최대로 팽창하여 부족간에 살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였으며 부족간 투쟁으로 남자들은 전투 경험을 쌓게 되었다. 험난한 투쟁에서 살아남은 전사(戰士)들이 징기스칸 아래 통일되었을 때 군정(軍政)이 일치(一致)하는 강력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기본(Gibbon)은 그의 저서 「로마제국흥망사」<sup>16)</sup>에서 고대 스키타이와 타타르(匈奴族)민

족은 음식, 주거 및 평소 생활면에서 장군들의 자질을 저절로 길러 왔다고 지적하였다. 가축만이 유일한 양식으로 진격시 가축 무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식량은 증식되고 미개한 초원을 지나게 됨으로써 풍부한 풀을 가축에게 먹일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말고기를 먹고 도살한 가축은 훈제 또는 천일 건조시켜 장기 보존 식품을 만들고 치즈를 환약처럼 만들어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물과 같이 먹는다.

그래서 곡물류를 운반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변질될 염려도 없으며 곡물류를 운반할 인력과 마력도 필요 없다. 이들은 워낙 인내심이 강하여 아주 빈약한 식사로 수십일 간 견뎌내며 사기가 떨어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아와 포식을 교대로 하는 습성이 되었고, 더구나 극단적인 두 가지 식사 습성을 별로 고통없이 견뎌낸다.

타타르인의 주거는 싸오라는 타원형의 조그만 천막을 치고 살면서 주변 초지에 가축을 방목한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풀을 다 먹게 되면 새로운 초지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군단대형(軍團形態)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막사 주변에서 가족, 동료, 부족들이 모여 생활하고 여름에는 강을 따라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하여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기슭에 막사를 설치하고 산다. 그래서 토지보다 막사 그 자체가 고국이며, 부족 그 자체가 민족인 것이다. 길고 긴 행군 중에 고난을 같이 하므로 친숙해지고 공동 의식이 싹트고 단결심이 공고해진다. 더구나 타민족의 약탈에 불안해하며 끝없이 경계하고 타부족이 약탈하기 위해 침입하면 모두 나아가 이를 격퇴함으로써 독립성, 강인성, 단결, 응집력이 저절로 생겨 부족이 하나의 전투군단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유목민의 생활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가축을 돌보며 사냥을 즐기기 때문에 전혀 낙마를 모르고 명기수로 성장하게 된다. 사냥이 중요한 오락의 하나이므로 강궁을 사용하여 활을 쏘면 목표물을 거의 명중시킨다. 수렵 대회는 흉노족의 흥미 있고 중요한 경기 대회이다. 수렵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십리나 되는 원형진을 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을 남김없이 쫓아서 사면을 포위하고 투창과 화살로써 사냥을 한다. 사냥은 며칠씩 계속되며 사냥감을 쫓아 산을 오르고 계곡을 통과하고 강을 건넌다. 이때 지휘관의 손짓에 의해 좌우로 이동하면서 사냥감을 포위한다. 따라서 넓은 광야에서 지형,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감각이 투철해진다. 이러한 수렵 대회는 곧 대기마군단의 훈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4. 몽골군의 군사조직, 무기 및 전술

### 가. 몽골군 조직

사기(史記)의 흉노열전(凶奴列傳)<sup>17)</sup>에는 흉노의 군 조직(軍組織)은 임금인 선우(單于) 아래 24인의 군단장(軍團長)을 두고 그 아래 천인대장(千人隊長), 백인대장(百人隊長) 그리고 십인대장(十人隊長)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징기스칸은 선우시대(單于時代)의 십진법식 군조직(十進法式 軍組織)을 더욱 발전시켜 기마병단(騎馬兵團)과 비슷한 만명으로 구성되는 독립 부대를 구성하여 만호(萬戶, 萬人隊, tuman)라 불렀으며 3개 만호가 하나의 군 또는 군단을 구성하여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만호 예하에 천호(千戶, 千人隊)를 두고 10개 천인대(千人隊)가 만호(tuman)가 되고 10개 백호(百戶, 百人隊)가 모여 천호(千人隊)를 구성하고 10개 십호(十戶, 十人隊)가 모여 백호(百人隊)를 형성하도록 하였다.<sup>18)</sup> 여기서 3개 만호가 하나의 전투 군단을 형성하도록 하는 아주 현대적인 군 조직을 하여 전투시 3개 만호가 중앙과 좌우익에서 서로 협조하여 적의 주 전투력(主 戰鬥力)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 나. 몽골군 무기

전형적인 몽골군은 40%가 중기마병(重騎馬兵)이며 이들은 가죽으로 무장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창을 잡고 있으며 주로 충격 행동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몽골군의 60%는 경기마병(輕騎馬兵)으로 이들은 활, 던지는 창, 그리고 올가미 밧줄을 지니고 있었으며 두 개의 전통(戰筒)을 지니고 다녔으며 뒤에 화살 운반 차량이 뒤따랐다. 경기마병(輕騎馬兵)은 정찰, 수색을 하고 중기마병(重騎馬兵)을 지원하고 소탕 작전과 추격 작전을 수행하였다. 몽골군이 장거리를 기동할 때는 예비말을 하나 이상 갖고 번갈아 탔으며 경기마병(輕騎馬兵)들은 모두 아라비아식 언월도(偃月刀)나 전투용 도끼(전부:戰斧)를 지니고 전투하였다.

몽골군의 무기는 주로 활, 갈고리가 달린 철퇴 그리고 칼과 창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활쏘기가 매우 익숙하였다. 특히 말로 하여금 조로몰이 뛰기<sup>19)</sup>를 가르쳐서 달리면서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활을 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동물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어서 기동력이 뛰어났다.

## 다. 몽골군 습성

몽골군은 전투에 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고,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며 성질이 매우 험하고 잔인했다. 보급이 끊어져 어려움을 당하면 말젖을 먹고 때때로 사냥한 들짐승을 먹으며 보통 1개월쯤 견딘다. 남자는 이틀낮 이틀밤(二日二夜)을 말안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견디며 말이 풀을 먹는 동안 잠잘 수 있도록 훈련이 잘되어 있다. 급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10일쯤 불도 피우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강행군할 수 있다. 그 동안 그들은 자기가 타는 말의 피를 빨아먹는다. 말의 정맥을 끊어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다. 18필의 숫말과 암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바꾸어 타고 달린다.

## 라. 몽골군 식사

몽골군은 젖을 진하게 만들어 걸쭉한 풀처럼 만들어 군량으로 사용한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젖을 끓이면 크림이 위에 뜨는데 이것을 다른 그릇에 담아 버터를 만든다. 크림이 있으므로 젖은 굳지 않는다. 나머지는 햇빛에 말린다. 이것을 전투하러 갈 때 10파운드씩 지니고 적당한 양을 물과 함께 넣어 두면 말이 달릴 때 적당히 섞어서 죽같이 되는데 이것이 점심이다.

## 바. 몽골군 작전 및 전술

몽골인은 전투시 절대로 적 가운데로 뛰어들어 혼전(混戰)하는 일이 없다. 말을 타고 적군 주위를 돌거나 한 측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활을 쏜다. 전형적인 몽골군의 전술은 기마병의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의 측면을 돌아가서 배후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을 일단 혼란시킨 다음에 포위 섬멸한다. 때로는 거짓 패하는 척하여 퇴각하면서 적을 몽골 진영 깊숙이 유인한 다음에 매복군으로 급습하여 섬멸한다. 또는 거짓으로 도주하다가 적이 따라오면 말달리면서 뒤로 활을 쏘아 적이 맞아 쓰러지면 곧 반격하여 적을 포로로 한다.<sup>20)</sup>

각 기병대에는 짧은 창(槍)과 검을 가진 500명의 보병이 있어 도주할 때는 말 엉덩이에 타고 도주하다가 기병대가 다시 기습할 때면 말 엉덩이에 타고 있던 보병은 말 엉덩이에서 내려 적의 말을 찢러 죽여 기마병을 떨어뜨려 죽였다. 몽골 기마병단은 신호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

일 수 있게 혼란되어 있어서 이합집산(離合集散), 퇴각공격(退却攻擊)을 자유자재로 하였다. 그래서 불리하면 흩어졌다가 서로 연락을 취하여 어느 순간에 빠른 기동성으로 병력을 집중시켜 순간 순간 한 지점에서 적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전법을 중국인들은 갈가마귀처럼 모였다가 벌처럼 흩어진다고 하여 鵙兵撒星陣이라 불렀다.<sup>21)</sup>

몽골군은 깃대를 뽑기 전에는 절대로 전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재집결할 기회를 본다. 만약 적에게 잡혔을 때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몽골인은 첫 폭설이 올 때부터 잡초가 싹이 틀 때까지 주둔지에서 멀리 떠나 대규모 사냥을 하여 군사 훈련을 한다.

몽골군이 기동할 때는 3개군으로 나누어 중군(中軍), 좌군(左軍) 그리고 우군(右軍)이 거의 평행하게 전진하면서 서로 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각군은 다시 중로(中路), 좌로(左路) 그리고 우로(右路)로 3개 제대로 병행하여 행군하거나 전투를 하면서 서로 측익을 엄호하면서 필요시 협력하도록 했다. 행군할 때 1개 부대는 2일 간 노정(路程)이 되는 앞에 세워 경계하게 하고 본대의 측면과 후면에 1개 부대씩을 두어 기습에 대비하게 한다. 중군(中軍)은 적 주력을 향하여 공격하고 좌군과 우군을 적의 주력에 참가할 수 있는 주변 부대를 소탕하는데 주력하고 이들이 소탕되면 적 주력으로 집중한다.

전투 형태는 주로 다섯 줄(5線)로 배치하며 첫 번째 두 줄은 중기마병(重騎馬兵)이 배치되고 다음 세 줄은 경기마병(輕騎馬兵)이 배치되었다. 여기에 배치되지 않은 경기마병(輕騎馬兵)은 5선 앞에서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였다. 특히 몽골군은 수색과 정찰을 철저히 수행하여 적의 주력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기마병에게 장애가 되는 지형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였다.

3개군은 원활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잠(jam, yam, 또는 잠치)이라는 역전(驛傳)제도를 만들어 예비말을 갖은 말탄 전령이 하루 150내지 250킬로를 달려 인접 부대 소식 및 정보를 전파한다. 뒤에 몽골은 이 제도를 역마제도(驛馬制度)로 확대하여 통치 지역에 사용하였다. 마르코 폴로는 역마제도를 양브(yamb)라고 기록하여 각 역에 언제나 400필의 좋은 말을 상비하고 있다가, 사자(使者)나 사절(使節)이 여기서 지친 말을 두고 새로운 말을 타고 가도록 하였으며, 원(元)나라 전역에 역사가 1만개, 역마(驛馬)가 24만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각 역사에는 황제의 급사(急使)가 있어서 한 역까지 가면 다른 급사가 서류를 받아 계속 달리므로 아무리 멀어도 2일낮 2일밤 이내 황제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했다.<sup>22)</sup>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첩자 또는 척후를 먼저 보내 공격 대상 지역에 정보를 획득하게 하거나 거주민, 상인, 여행자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여 사전에 정보를 충

분히 획득한 후에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작전을 논의하고 공격로를 선정한다. 대도시를 공격할 때는 정찰대를 먼저 보내 동향을 파악하고 포위 공격을 하고 그 지역 포로들을 동원하여 해자를 메꾸게하고 투석기등 공성장비를 운반하도록 하여 공성을 돕도록 한다.<sup>23)</sup> 공성장비는 주로 중국인 및 이슬람인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었고 수공법(水攻法)은 중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기 1207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완전히 통일한 다음 금국(金國)과 주종 관계(主從關係)를 단절하고 서기 1210년에 금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당시 중국은 북동쪽에 금(金), 남쪽에 송(宋), 그리고 서북쪽에 서하(西夏)가 차지하고 있었다. 서하의 더 서쪽에 서요(西遼)가 있었고, 서요의 서쪽에 호라즘(또는 하레즘, 코라즘 : Khwarezm)왕국이 있었다. 금 동쪽에 고려가 있었고 동해를 건너 왜(倭)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몽골 잠재력을 이끌고 징기스칸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전승을 거두었는가를 징기스칸이 직접 지휘한 주요 전투를 더듬으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5. 중도(中都, 일명 燕京)지역 전투

금나라는 장성(長城)을 쌓고 보수하면서 몽골 기마병의 침입을 막고 있었다. 이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면 몽골 동쪽에는 흥안령(興安嶺)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고 서쪽에는 알타이산맥이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놓여 있으며 남쪽에는 음산산맥(陰山山脈)이 동서로 뻗어 있다. 음산산맥에서 북쪽 바이칼호 사이에 몽골고원이 펼쳐져 사막을 이루고 있다. 고원지대는 비가 적고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하다 그래서 대부분 불모지이면서 황량하고 곳곳에 모래언덕이 산재했다. 음산산맥 남쪽에는 색북고원(塞北高原)이 있어 금나라는 음산산맥과 색북고원을 따라 장성 및 요새진지를 구축하였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여 장성을 보수하면서 몽골 침입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金)은 국내를 통치하기 위해 오경(五京)을 두었는데 오경은 동경 요양부(東京 遼陽府, 지금 遼寧 遼陽縣), 남경(南京 開封府, 지금 河北省 開封縣), 서경(西京 大同府, 지금 山西省 大同縣), 북경(北京 大定府, 지금 熱河省 寧城縣), 그리고 수도인 중경(中京, 中都 또는 燕京이라고 함 : 析津府, 지금 北平市)이다. 금나라는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해 북쪽에 변모장성(邊堡長城)을

설치하였다. 변모장성은 여러 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도(中都)를 중심으로 서북쪽 장성은 거용외변모장성(居庸外邊堡長城)이고 동북쪽 장성은 임황변보장성(臨潢邊堡長城)있었고 중도 가 사이에 거용내변보장성(居庸內邊堡長城)과 중경외보장성(中京外堡長城)이 있었다.<sup>24)</sup>

서기 1210년 금제 장종(金帝 章宗)이 죽고 윤제(允濟)가 즉위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징기스칸에 보내 군신의 관계를 의미하는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했으나 징기스칸은 이를 거절하였다. 징기스칸은 금나라 정벌을 결의한 후 5년 동안 금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장성을 돌파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했다. 남쪽 금나라 정벌시 우측 측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1210년 서하를 공격하여 항복 받고 서하를 위협하여 강화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측면 위협을 제거했다. 그리고 후방의 안전을 위해 몽골 서북부지역을 평정하였다. 나이만족과 전투 할 때부터 은구트족(汪古族)과 동맹을 하고 나이만족을 정벌한 후 1206년에 은구트족 수장 아라쿠시 데긴을 고위직에 임명하여 장성 밖에 위치한 부족을 몽골에 협력토록 했다.

서기 1211년 몽골군은 오논강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해 3월 징기스칸은 케르렌강에서 쿠릴타이(대집회)를 열고 금정벌(金征伐)에 대한 작전회의를 개최했다. 징기스칸 예하에는 백전노장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사준마(四駿馬, 四傑)로 불리는 무카리(木華黎, 또는 모홀리)<sup>25)</sup>, 보올추(博爾朮), 칠라온-바아트르(赤老溫), 보로콜(博爾忽, 1207년에 사망) 우수한 지장(智將)들과 사구(四狗: 네 마리의 개)로 불리는 체베(哲別, 遮別 또는 者別), 수부다이(速不台), 제르메(折里麥)<sup>26)</sup> 그리고 쿠빌라이(虎必來) 맹장(猛將)들이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쿠릴타이(작전)회의를 한 후 몽골군은 3개 군(軍)으로 편성하여 중군은 징기스칸이 직접 인솔하여 케르렌강을 넘어 금(金)의 수도 중도(中都, 일명 燕京; 지금의 北平)를 향해 진군하였다. 이때까지 몽골군은 기병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규율은 엄하고 장군과 병사들은 용맹하였다. 병사들은 혁갑을 두르고 활, 철퇴, 창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기병 부대 뒤에 별도로 여러 예비말들이 뒤를 따르면서 식량을 운반하였고, 그 뒤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가축이 뒤따랐다. 그 병력의 규모는 상세하지 않으나 약 20만 정도였다. 이때 징기스칸의 네아들 주치(求赤), 차가타이(察合台), 오코타이(窩闊台), 그리고 투루이(拖雷)가 종군했다.

징기스칸은 금의 수도 중도로 곧바로 진군할 수가 없었다. 케르렌강에서 바로 중도(연경)로 진격한다면 당시 금의 영토인 만주 쪽에서 몽골군 측면을 가할 우려가 있어서 케르렌강에서 서쪽으로 나가 대사막을 우회하여 덕흥부(德興府)로 나갔다. 징기스칸은 미리 친교를 맺어 둔 장성(長城)밖에 있는 은구트족의 땅에 이르러 족장의 환영을 받고 이때 여름이라 인마를 휴식시켰다.

금제(金帝) 위소왕(衛紹王), (영제(永濟) 뒤에 윤제(允濟)로 칭함)는 최초 몽골군이 대거 침입해 온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합매주(納合買住)가 북방을 지키고 있다가 몽골군이 이 장차 침입해 올 것이라는 것을 금제에게 알리자 금제는 “저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너는 어찌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꾸짖고 남합매주가 몽골이 통일되어 징기스칸을 따르고 있고 서하(西夏)도 그에게 딸을 받쳐 복종하고 있으며 저들이 화살과 방패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자 금제는 변방을 소란하게 하여 전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어버렸다.<sup>27)</sup> 그래서 금제는 몽골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대비하는 데도 아주 허술했다.

1211년 징기스칸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입해 온다고 소식을 듣고 금제는 매우 두려웠다. 그래서 서북로초토사(西北路招討使) 점합합타(粘合合打)를 몽골로 보내어 강화를 청했으나 징기스칸은 이를 거절했다.<sup>28)</sup>

금 영제는 평장정사(平章政事; 丞相) 독길천가노(獨吉千家奴, 일명 獨吉思忠) 그리고 참지정사(參知政事; 副丞相) 완안호사(完顏胡沙)를 무주(撫州; 현재 察哈爾省 張北縣 북쪽에 위치)로 보내 대비케 하고 서경유수(西京留守) 호사호(胡沙虎)에게 추밀원사(樞密院事; 서경방면 兵權을 전담) 일을 보게 하여 몽골군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다. 금제는 대신들을 모아 대비책을 논했으나 이미 안일에 젖어 있어서 성곽은 무너진 데가 많고 무기는 녹슬고 못쓰게 된 것이 많았고 병사들은 병들고 몽골군 침입에 떨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여 온구트족(汪古部族)의 안내를 받아 장성으로 접근하여 오사보(烏沙堡; 현재 旺兀察者)에 이르렀다. 오사보는 음산산맥(陰山山脈) 동쪽에 있는 요새 진지였으나 금평장정사 독길천가노(獨吉千家奴)와 참정(參政) 완안호사(完顏胡沙)는 군사를 장성(居庸邊堡)에 주둔시켜 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선덕부(宣德府)에 예비대를 두고 몽골군이 장성을 넘어오면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몽골군은 장성 서쪽으로 우회하여 남쪽에서 금군을 공격했다. 독길천가노는 친히 금군을 이끌고 수비하고 있었다. 몽골군이 100여일 공격해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사보와 오운보(烏雲堡)가 나란히 있고 가운데 오월보(烏月堡)가 있어서 지원하여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더구나 몽골군은 기마부대라서 공성법을 알지 못했다.

이때 징기스칸은 금군이 대거 지원해 오지 않나 심히 걱정스러웠다. 이때 삼림속에 연기가 올라 금군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알고 좌군을 동남쪽으로 보내 오월보가 있는 것을 알고 공격했다. 오월보는 수장(守將) 완안호사(完顏胡沙)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제베(遮別)가 급습하자 패했

다. 그래서 몽골군은 오월영(烏月營)을 취해 버리니 독길천가노는 오사보를 지탱할 수 없어서 도주해 버렸다.

독길천가노가 실패하자 금제는 완안호사를 서북 지역을 방어케 했다. 완안호사는 야호령(野狐嶺 : 현재 張家口 북쪽 30리에 위치)에 주둔했다. 이때 한 사람이 “몽골군이 휴식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병으로 기습하자”고 제안했으나 완안호사는 “그 방법은 위험하다. 기병과 보병이 함께 전진해야 안전한 방책이다.”라고 듣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다가 몽골군이 전진해 오자 완안호사는 두려워 선평(宣平 : 지금 張家口)으로 도주했다. 그래서 몽골군은 전투를 하지않고 야호령을 탈취한후 마음껏 약탈했다.

7월에 오사보(烏沙堡)를 점령하고 8월에 징기스칸은 주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회하천(會河川)이 있는 회화보(會河堡)에서 금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완안호사는 선평(宣平)에 머물러 장성을 보수하고, 각 보(堡)를 수리하여 몽골군에 대비했다. 몽골군이 공격하자 완안호사(完顏胡沙)는 금군 30만 내지 40만을 집결시켜 몽골군과 결전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회화천(會河川 : 지금 察哈爾省 萬全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완안호사는 거란인 석말명안(石抹明安)을 몽골진영에 보내 부당함을 따지게 했는데 그는 바로 몽골에 항복했다.

8월에 징기스칸은 명안의 조언을 듣고 대군을 이끌고 금군이 있는 회하천 동쪽을 공격했다. 이때 금군의 방어는 견고하여 몽골군의 피해가 컸었다. 다음날 공격할 때 몽골의 만호 무카리(木華黎)는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능히 이길 수 없다(彼重我寡 不致死 不能克也).”라고 말하며 친히 결사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을 감행했다.<sup>29)</sup> 뒤를 따라 징기스칸이 대군을 적진으로 몰아 붙였다. 드디어 금의 여진병(女眞兵), 거란병(丹兵), 한병(漢兵)이 일시에 혼란이 일어났다. 몽골군이 괴성을 지르며 금군은 괴멸하여 금군의 정병과 우수한 장군들이 반 이상이 전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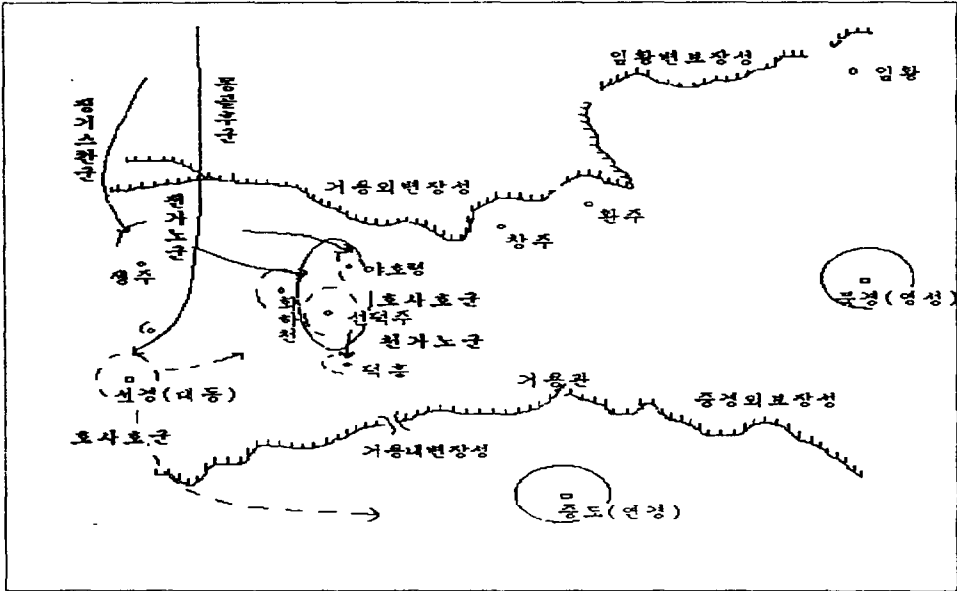
1211년 9월에 몽골군은 흥덕부(興德府; 지금 察哈爾省, 逐鹿縣)를 탈취하고 거용관(居庸關)아래 이르렀다. 징기스칸은 주력을 이끌고 백등산(白登山) 양면을 경유하여 서경 대동부(西京 大同府; 지금 山西省 大同縣)를 압박했다. 징기스칸은 제베에게 기병 3천기를 주어 추격케하여 취병산(翠屏山)어구(지금 察哈爾省 萬全 북쪽)에서 금군을 크게 무찔렀다. 금군은 대형을 잃고 무질서하게 거용관(居庸關)으로 도망했다. 거용관 수비장은 문을 열었고 패잔병을 받아들이는 중에 제베 기병들이 들이 닥쳐서 제베는 철웅성이라 하는 거용관을 단번에 점령해버렸다.<sup>30)</sup> 연이어 증도로 접근해 나아갔다.

10월에 야를아해(耶律阿海)가 항복해 와서 징기스칸이 접견하고 금나라 사정을 보고 받았다. 징기스칸의 아들 주치, 차카타이, 오코타이가 운내(雲內), 동승(東勝), 무주(武州), 삭주(朔州) 등을 점령하며 남하했다.

11월에 서경유수 호사호(胡沙虎, 일명 紇石列 또는 胡沙里執中)는 성을 수비할 생각은 않고 성을 버리고 동쪽으로 도주해 버렸다.<sup>31)</sup> 북경(北京 大定府; 지금 熱河省 寧城縣) 유수(留守; 수비 대장) 도단일(徒單鎰)이 중도(中都)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2만 명의 병력을 선발하여 장군 오극손악둔(烏克遜 屯 또는 烏克遜兀屯)으로 하여금 수도를 지키도록 했다. 금제는 가상하여겨 상경 유수(上京留守) 도단일을 우승상에 임명했다

금나라 평장정사(平章政事) 도단일(徒單鎰)이 금제 영제에게 “몽골군은 병력을 몰아서 오고 우리는 분산되어 있으니 몽골군이 공격해 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을 의지하여 적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주(昌州; 지금 察哈爾省 宣化境), 환주(桓州; 지금 察哈爾省 多倫縣), 그리고 무주(撫州; 지금 察哈爾省 張北縣) 세 고을은 서민들이 부유하여 모두 건강하고 용감하니 동원하여 군대 편입시켜 방어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참지정사(參知政事) 양당(梁璿)이 “스스로 국경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 그래서 금제는 양당의 주장을 따랐다. 또한 도단일은 “요동은 우리 나라의 근본이고 수도와 수천리 떨어져 적의 공격을 받으면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으니 대신을 보내 행정(行省, 軍政權을 부여받은 부서)을 설치하여 백성을 안심시키도록 하십시오”하고 건의했으나 “민심을 동요시킬 뿐이다.”라고 하여 듣지 않았다.<sup>32)</sup> 그리고 관직을 낮추어 북경유수(北京留守)로 임명했다.

징기스칸은 서경에 머물면서 예하 장군들로 하여금 운내(雲內) 여러 주를 탈취하도록 했다. 1212년 1월 요나라 왕족인 예를류가(耶律留哥)가 만주지역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몽골에 귀순해 왔다. 금제는 완안호사(完顏胡沙)<sup>33)</sup>를 보내 예를류가를 토벌하게 했으나 예를류가는 징기스칸이 보낸 3천기의 도움을 얻어 금군을 대파했다.<sup>34)</sup> 징기스칸은 다음해 야를류가를 요왕(遼王)으로 임명했다. 징기스칸은 창주(昌州), 환주(桓州), 그리고 무주(撫州)등을 격파한 가을에 서경을 포위했다.<sup>35)</sup> 금장 오둔양(奧屯襄)이 서경을 지원했다. 이때 징기스칸이 별동대를 보내 밀곡구(密谷口)에서 금군을 격파했다. 다시 서경을 공격할 때 징기스칸이 화살에 맞아서 부상당함으로 해서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이때 몽골군은 탈취한 요새를 몽골군을 주둔시키지 않고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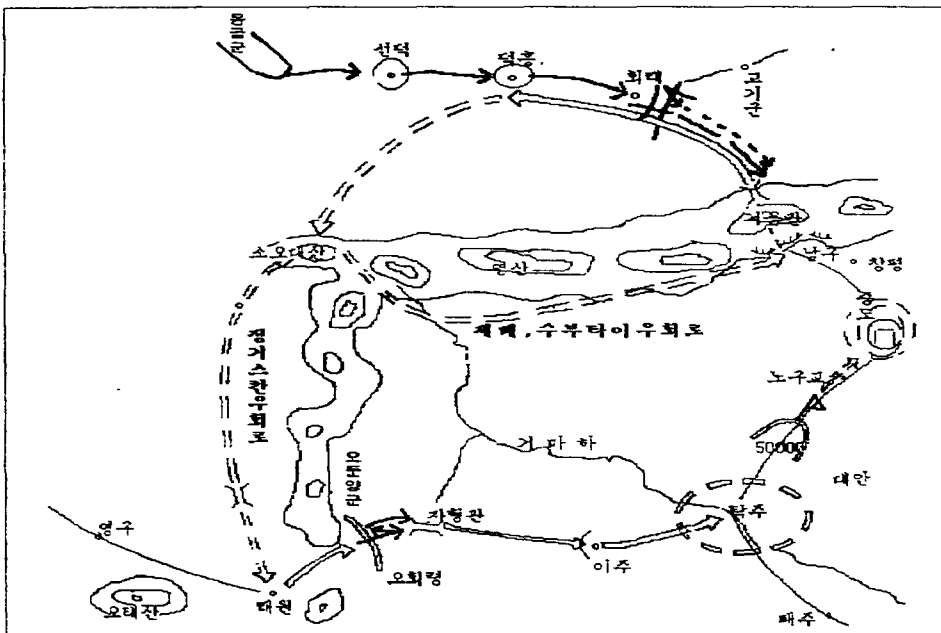
〈그림〉 회하천 전투(1211)

요나라 사람 서목로액삼(舒穆魯額森)이라는 사람이 요나라를 멸한 금나라에 대해 한을 품고 수백인을 이끌고 몽골에 투항하면서 징기스칸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듣고 징기스칸이 말했다. “동경(東京)은 금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이다. 여기서 수천리가 넘으니 경기병으로 달려가 공격하면 기습이 가능하다. 금나라의 근본을 탈취한 다음에 중국의 중원(中原)을 공격한다면 쉽게 격멸할 수 있다.”<sup>36)</sup> 이렇게 계략을 정한 후 제베에게 말과 경기병을 엄선하도록 하여 발해(渤海)서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격해 나갔다. 요하(遼河)를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건너 금의 동경인 요양성(遼陽城)아래 이르렀고, 요양성은 견고하고 수비도 강력했다. 그래서 제베의 기병으로서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러므로 제베는 성 공격을 중지하고 물러났다. 그러는 중에 금나라와 동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를 포로로 했다. 이때 서목로액삼이 계략을 건의했다. “동경사자로 가장하여 성문을 열게하고 대군으로 갑자기 성문으로 들어가면 성을 점령할수 있습니다.” 제베는 그 의견을 따라 저녁이 되어 어두울 때 몽골군을 퇴각시키고 조정사자를 성으로 보내서 성문이 열렸다. 그래서 1212년 12월에 제베는 급습하여 요양성을 함몰했다.<sup>37)</sup> 징기스칸은 사목로액삼에게 그 공을 인정하여 만호(萬戶)를 부여했다.

최초 몽골군이 금나라를 치는 목적은 야전군 주력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몽골병은 기마병이어서 성을 지키는데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보(城堡)를 파괴하고 자녀, 보물 등을 약탈하고 나면 성을 지키는 잔류병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금군은 몽골군이 철수하고나면 성을 다시 보수하여 수비하곤 했다.

서기 1213년 징기스칸은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몽골군은 7월에 선덕부(宣德府; 지금 察哈爾省, 宣化縣)을 경유하여 덕흥부(德興府; 지금 察哈爾省 逐鹿縣)에 이르러 징기스칸은 넷째아들 투루이(拖雷)와 사위 치구(駙馬 赤苦)에게 덕흥부를 취하도록 맡기고 동남쪽으로 나아가 회래현(懷來縣)에서 금제가 파견한 완안강(完顏綱), 고기(高琪) 등이 인솔하는 금군과 마주쳐서 몽골군이 공격하자 기세에 눌려 금군이 퇴각했다. 몽골군이 급히 추격하자, 금군은 질서를 잃고 참패하였다. 몽골군은 거용관(居庸關) 북쪽에서 금군주력을 포위하여 섬멸했다.

거용관은 중국인이 천험(天險)이라 할 정도로 험한 곳이고, 남북 쪽에 두 개 문이 있는데 남문은 남구(南口)라 하고 북문은 북구(北口)라 했다. 남구와 북구의 거리는 40리 정도이고, 이 사이에 절벽, 협곡, 깊은 골짜기 물이 있고 곳곳에 금군이 수비하고 있었다.



<그림> 중도(연경)접근 전투(1213)

징기스칸은 몽골군 일부를 거용관 북문을 공격하도록 남겨두고 주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나아가 산서성 광영(廣靈)과 영구(靈邱)등을 지나 래원(洩源)에서 동쪽으로 진출하여 자형관(紫荊關)으로 나갔다. 자형관은 오둔양(奧屯襄)군이 지키고 있었다. 양군은 오희령(五迴嶺)에서 접전했는데 금군이 대패했다. 이 승세를 타고 몽골군은 10월에 쉽게 이주(易州)와 탁주(涿州)를 점령하고 중도(연경; 지금 북평) 남쪽에 진출했다.<sup>38)</sup>

서경유수이면서 추밀원(樞密院)으로 있던 호사호(일명 紇石烈)는 오사보, 회하보, 야호령에서 대패하고 서경을 포기하여 평소 금제의 미움을 샀으므로 이에 불만을 품고 1213년 8월에 금제 영제를 살해하고 영제의 조카 완안순(完顏珣)을 선종(宣宗)으로 옹립했다.<sup>39)</sup> 10월에 수도방위를 맡고 있던 주호고기(元師 右監軍, 求虎高琪)가 호사호를 살해하고 금나라 전권을 장악했다.<sup>40)</sup>

징기스칸은 제베(遮別)와 수부타이(速不台)에게 별동대를 주어 거용관(居庸關) 남쪽을 공격하도록 했다. 금나라 수비장 거란인 와로불아(訛魯不兒)는 거용관 북문을 열고 몽골군에 귀순하여 제베는 거용관에 진입했다. 그래서 탁주에 있던 몽골군과 금의 수도 중도(지금의 北平市)를 포위했다.

1213년 가을 중도를 포위했으나 성벽이 견고하고 수비가 엄중하여 성을 점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일부 군을 중도에 남겨두고 3군으로 나누어 황하(黃河)이북에 있는 여러 지방을 소탕하기 시작했다.<sup>41)</sup>

우군은 징기스칸의 아들 주치(朮赤), 차카타이(察哈台), 오코타이(窩闊台)가 인솔하여 이주(易州; 지금 河北城 경계지역)에서 출발하여 태행산(太行山) 동쪽을 따라와서 정주(定州), 형(邢), 락(洛), 자주(磁州), 위(衛), 맹(孟)에서 황하에 이르고 여기서 산서(山西)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3로(三路)로 나누어 제1로는 황하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길주(吉州), 습주(隰州), 람주(嵐州)를 소탕하였고, 제2로는 평양(平陽), 태원(太原), 혼주(忻州), 대주(代州)를 따라 소탕했다. 그리고 제3로는 탁주(澤州), 로주(潞州), 요주(遼州), 심주(沁州)를 소탕하고, 모두 서경 남쪽에서 만나 중도에 집결했다.

좌군은 징기스칸의 아우 카사르(出赤哈撒兒), 알진나안(斡陳那顏 또는 作阿拉赤)으로 기록되고 있음) 그리고 박리(薄利)등 장군들이 인솔하여 중도에서 동쪽으로 전진하여 계주(薊州), 평주(平州), 요서(遼西)지역의 여러 주를 탈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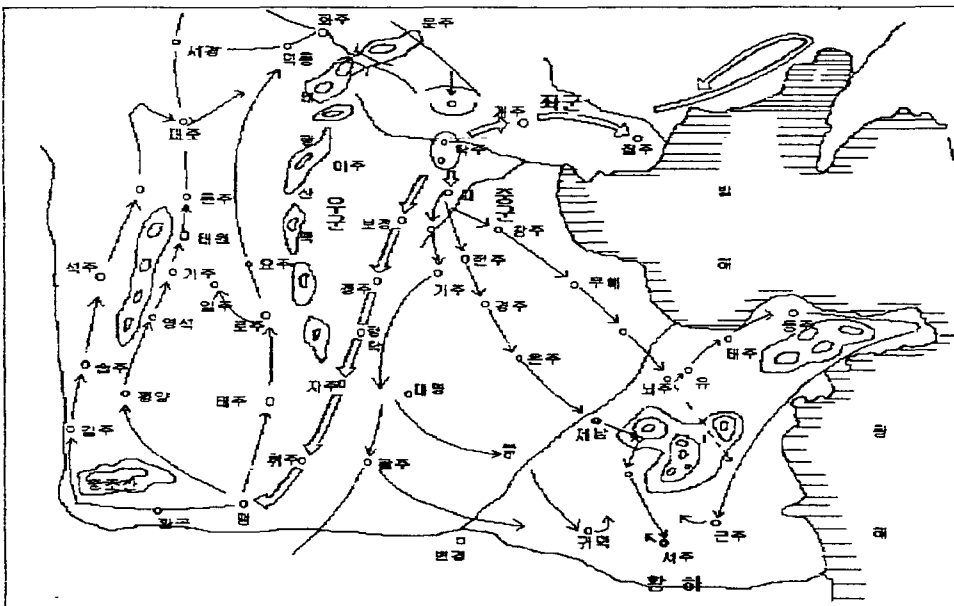
중군(中軍)은 징기스칸의 넷째아들 투루이(拖雷)와 무카리(木華黎)를 대동하고 역시 삼로(三路)로 나누어 우로군(右路軍)은 잠(蠶), 기(祁), 심(深), 기(冀), 복(濮), 개(開), 활(滑) 등 여러 주(州)를 소탕하고 서주(徐州)부근에서 중로군과 만났다.

중로군(中路軍; 징기스칸이 지휘)은 패(霸), 웅(雄), 막(莫), 하간(河間), 헌(獻), 경(景), 은(恩) 등 여러 주를 지나 제남(濟南)과 태안(泰安)을 소탕하고 제주(濟州)를 지나 서주(徐州)에 이르러 우로군과 만났다.

좌로군(左路軍; 무카리가 지휘)은 발해(渤海)연안을 따라 창주(滄州), 무예(無예), 빈주(濱州), 순뢰(循濼), 유주(濼州), 래주(萊州), 등주(登州) 등 산둥지역을 소탕하고 기주(沂州)를 지나 서주에서 중로군과 만났다. 무카리(木華黎)는 다시 1군을 거느리고 밀주(密州)를 공략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돌아와 징기스칸은 만호(萬戶)를 부여했다.

징기스칸은 중국인이 부모에 대해 효행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중국인을 제일선에 배치하여 공격했다. 주민들은 차마 동족을 죽일 수 없어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사에 포로와 인근 농민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들을 선두에 세워 공격하도록 하여 성을 수비하는 중국인이 동족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마음 아픔을 감수하게 하였다.

10월에 전군이 중도(中都)에 집결했고, 징기스칸은 강공을 중지하고 용호대(龍虎臺)에서 겨울 체비를 했다. 서기 1213년 8월과 9월에 금(金)의 수도 중도 내부에서는 권신 호사호(湖沙湖)가 위소왕(衛紹王: 일명 允濟)을 살해하고 조카되는 승왕(昇王)을 제위에 올려 선종(宣宗)이 되는 혼란이 있었으나 중도성은 견고했고 수도방위는 결사적이었다.



(그림) 중도(연경)주변전투(1213~1214)

1214년(징기스칸 9년) 1월에 몽골군은 하북평원을 소탕하고 다시 중도근교에 집결했다. 3월에 여러 장군들을 모아놓고 중도(燕京)를 공략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했다. 대부분의 장군들은 금국의 내정이 취약한 이 기회에 중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공성전에 취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장기전으로 많은 병사들이 손상 당하였음을 파악하고 중도성 공격안에는 찬성하지 않고 금제(金帝: 금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지금 산동과 하북지역은 본인의 장악하에 있고 경은 다만 연경(中都)만 지키고 있을 뿐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너희를 위협에 몰아 넣을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경은 순리에 따라 생각하기 바란다.”<sup>42)</sup>

금나라 평장정사(平章政事) 출호고기(朮虎高琪)는 “몽골군의 군마와 병사가 몹시 지치고 병들어 있으니 이틈에 전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에 우승상(右丞相) 완안승휘(完顏承暉)는 “몽골군과 싸워 패하면 군사는 흩어져 망할 수 있고 승리하면 몽골군이 철수한 후에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니, 화의한 후 몽골군을 철수시킨후 대비책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책입니다.”라고 건의했다.

금제는 사절을 보내 화의를 청하고 위소왕(衛紹王)의 딸 기국공주(岐國公主)와 금, 은, 비단, 짙은 남녀 500명 말 3천필을 보냈다. 징기스칸은 화의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거용관 밖으로 철수시켜 귀환했다.

금제(金帝)는 중도성이 사면호가(四面胡歌)인 상태여서 불안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서기 1214년 6월에 도읍을 하남성(河南省) 변경(汴京: 開封)으로 옮기고 말았다. 이에 징기스칸은 자기를 의심하는 데 대해 분개하여 다시 침범하였다. 이 때 금나라를 배반한 명안(明安)을 몽골군을 안내 하면서 중국의 전법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중도성내는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수비병 10명 중 1명은 전사했다. 그러나 수비병의 저항은 완강하여 심지어 은과 금으로 노포(弩砲)를 만들어 발사하기까지 했다. 몽골군은 갱도를 만들어 중도성 중앙에 침입해 들어갔다. 드디어 몽골군은 서기 1215년 5월에 중도성을 점령하고 늙고 어린 남녀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하고 성을 불태워 중도는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황화 이북의 땅 요동, 요서, 하북, 상서, 협서성을 몽골 세력 아래 두었다.

이 전투에서 징기스칸은 처음으로 중국문명을 접하게 되었고, 옛 요나라 야율초재(耶律礎材)를 알게 되었다. 징기스칸은 기병 이외에 보병과 노포(弩砲) 및 공성술(攻城術)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고 처음으로 요새진지를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그래서 무카리(木華黎)를 중국 주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중국 병법을 터득하도록 했다.

## 6. 서아시아지역 전투

징기스칸이 중도를 점령할 즈음인 서기 1216년 호라즘(하레즘 또는 코라즘 : Khwarezm)왕의 사신과 이슬람 대상을 접하고 서역과 교역하기 위해 사신과 함께 많은 물건을 실은 대상들을 보냈으나 호라즘 동방총독(오토라르(Otrar) 성주) 이날추크(Inalchug 또는 Inaljuk)에 의해 대상들이 습격당하여 죽고 물건은 약탈당하고 말았다. 평소 징기스칸은 동서양을 오가며 장사하는 대상들을 중요시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부족간 약탈에 난더리가 났으므로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약탈하는 처사는 용서하지 않았다. 징기스칸은 사신을 호라즘왕에게 보내 범인인 총독을 인도해 주면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전언했으나 호라즘왕은 이를 거절하고 몽골 사신마저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sup>43)</sup> 그래서 서기 1219년에서 1225년에 이르는 징기스칸의 7년서정(西征)이 시작되었다.

서기 1219년 여름 징기스칸은 알타이산 남쪽과 발하쉬(Balkhash)호의 동쪽 이르티시강 연안에 병력 15만에서 20만을 집결시켰다. 먼저 장자 주치(求赤)에게 1개 부대를 주어 선발대로 시르다리아강 하류와 북쪽으로 알라타우(Ala tau)산맥 사이를 약탈하여 약탈한 말과 마초를 후송하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불태워 버렸다. 몽골군은 초원에 불을 질러 화염을 일으켜 자기들의 기동을 적이 간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 수개월간 기동하지 않고 적의 동정을 살피 적 방어계획을 수립하여 20만의 병력을 소집하고 광정면(廣正面)에 병력을 분산 배치한 사실을 탐지했다.

호라즘왕 알라드 딘 모하메드(Alaud Din Mohammed 또는 Ala-edin Muhammad)<sup>44)</sup>는 몽골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르다리아(Syr Darya)강을 연하여 오토라르(Otrar), 코젠em(Khojend)에 이르는 주요 요새에 예하 병력을 배치하고 별도로 사마르칸트(Samarcant), 부하라(Bochara), 우르겐지(Urgench) 등 주요 도시에 수비병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몽골군이 공격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르다리아강은 호라즘국 북동쪽으로 국경선을 이루는 무려 2,800킬로미터나 되는 큰 강이다.

## 가. 호라즘지역 전투

서기 1220년초 징기스칸은 4개군 1개 별도대로 나누어 전면공격을 실시했다. 1개군(우익)은 장자 주치(求赤 : Juji)가 이끌고 시르 다리아(Syr Darya)강 하류 쪽으로 나아가 시크나크(Sighnaq : 현재 Turkestan 맞은편 지역)를 7일간 공격하여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계속 강하류로 내려가 공성용 사다리를 타고 잔드(Jend : 현재 페로프스크 부근)성을 공격하자 사령관은 도주하고 주민들이 항전했으나 결국 몽골에 점령당했다. 주치는 시내를 약탈하고 부하라인 알리 호자를 시총독으로 남겨두었다.<sup>45)</sup>

이라크 노안(阿里海)<sup>46)</sup>, 수케츠 체르비<sup>47)</sup>, 타카이(塔海拔都兒)<sup>48)</sup> 등이 지휘하는 5천명의 별도대는 강상류로 가서 타쉬켄트(Tashikent) 서쪽에 있는 베나케트(Benaket)를 공격했다. 그리고 강상류로 올라가 코젠드(Khojend)를 포위했다. 이 도시는 터키인 수비대장 티무르 말릭(Timur Malik)이 강에 있는 모든 배를 몰아 강 가운데 있는 섬에 몰아두고 배를 타고 나아가 강변에 있는 몽골군에 대해 화살을 쏘아 댔다. 몽골군은 중국 기술자를 동원하여 투석기를 만들어 화염을 나무통에 넣어 던졌다.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뚝을 쌓아 섬으로 접근했다. 티무르 말릭은 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하류로 나아가다가 베나케트(Benaket)에 이르러 몽골군이 쳐놓은 강을 가로지르는 쇠사슬을 끊어 버렸다. 그 하류에는 주치의 군사들이 선교(船橋)로 강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지킬틈 사막으로 도주해 버렸다.<sup>49)</sup>

차자(次子) 차카타이와 삼남 오고타이(좌익) 역시 병력 50,000명을 인솔하여 발하쉬(Balkash)를 지나 시르다리아(Syr Darya)강가에 있는 오토라르(Otrar)를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런 후 대상(隊商)을 죽여 몽골군 원정의 원인을 제공한 이날추크(Inalchug)를 포로로 잡고,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시르다리아강 지역에 있는 수개 요새를 탈취했다.

별동대는 체베(Chepe)가 병력 20,000명을 이끌고 파미르고원을 지나 아무다리아(Amu Darya 또는 Oxus)강을 따라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로 접근했다. 체베 뒤를 수부타이 부대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 뒤에 토크차르(Tokhuchar)가 도시 주변을 약탈하면서 치중부대를 이끌고 따랐다. 별도대는 카쉬가르(Kashgar)에서 남쪽 경로를 따라 페르가나(Ferghana) 골짜기를 통과하여 코칸트를 점령하고 코젠드(Khojend)를 포위했다. 이때 체베 분견대는 북동쪽으로 나아가 차카타이와 오고타이군과 만났다.

징기스칸(중군)은 역시 병력 50,000명을 인솔하여 주치와 차카타이가 통과한 뒤를 따라 발하

쉬호 남쪽을 지나 시르다리아강이 아랄해(Aral sea)에 이르는 어구에 접근했다. 징기스칸은 넷째아들 투루이를 데리고 시르다리아강을 건넌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징기스칸군은 전위(前衛)다이르 바아투루를 따라 광대한 키질쿰(Kizyl Kum : 붉은 모래땅)사막을 동남쪽으로 통과하여 첫 새벽에 누라타(Nurata)에 나타났다. 이때 주민들은 몽골군의 척후를 보고 자기편 대상으로 오인하고 소비하기는커녕 성문을 활짝 열었다. 징기스칸은 주민을 가축과 함께 몰아낸후 마음껏 약탈한 후 배상금을 물었는데 그것은 호라즘국의 세금 정도에 불과했다.<sup>50)</sup>

서기 1220년 2월에 징기스칸군은 갑자기 부하라(Bokhara) 근교에 나타났다. 부하라 수비대는 2만 내지 3만으로 터키 용병이었다. 몽골군은 사흘 동안 설새없이 공격하여 수비대장은 도주하고 수비병들은 흩어졌다. 그래서 2월 중순에 부하라는 점령되었다. 그러나 성내 성채에서 400여명의 터키병이 농성을 하자 주민들을 모두 동원하여 해자(壕宇)를 메우게하고 노포(弩砲)를 쏘아 성채를 파괴했다.<sup>51)</sup>

13세기 페르시아사가 주와이니는 1260년에 “세계의 征服者의 歷史”를 저술했고 아라비아사가 아분 알 아필은 “연대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주와이니는 징기스칸이 부하라를 점령한 후 “너희들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아분 알 아필은 “무서운 날이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오직 영원한 이별을 슬퍼하는 남녀노소의 오열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사마르칸트(Samarkand) 가까이에 있던 호라즘왕 알라드 딘 모하메드(Alaud Din Mohammed)는 코젠트와 오토라르의 포위공격 소식을 들었다. 그때 체베가 남동쪽에서 진격한다는 소식을 접하여 코라산(Khorasan)과 가즈니(Gahazni)간의 병참선을 보호하기 위해 대병력(약 10만명 정도)을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때 다시 징기스칸이 부하라(Bokhara) 북서쪽에서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라즘왕은 몽골군의 공격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몽골군은 기마병의 특성을 살려 신속하게 기동했다. 또한 수마일씩 간격을 두고 산개하여 접근해 오므로 호라즘왕은 몽골군의 병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오인하였다. 징기스칸은 갑자기 부하라 배후에 나타나 적의 허를 찔러 단번에 무너뜨렸다. 호라즘왕은 자기의 병력을 모두 부하라, 사마르칸트 및 기타 요새에서 방어하도록 하고 자기는 가족과 친위대를 이끌고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도주했다.

실제 호라즘왕의 총병력은 몽골군보다 많았으나 각 요새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자기 요새만 고수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요새전에서는 호라즘군이 훨씬 열세하였다. 더구나 이때 몽골군은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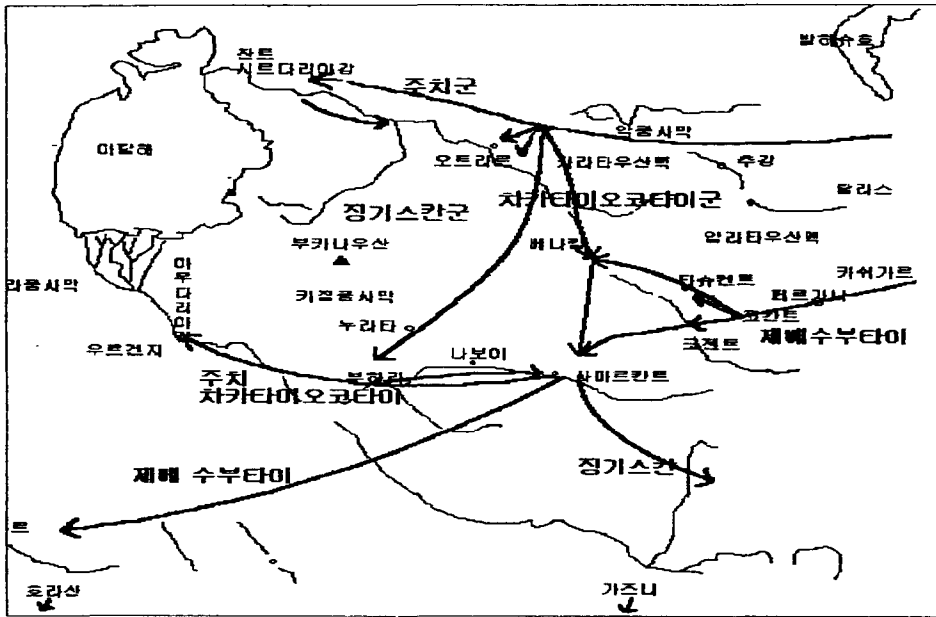
국과 전투하면서 공성전을 익히고 공성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알아 투석기, 사다리 등 공성용 기구를 사용하였다. 몽골군은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 언제나 하는 것처럼 그 고장에 살고 있는 포로들을 앞세워 성의 해자(垓字)를 메우고 공성기와 공성용 사다리를 운반시키고 공성용 사다리를 성에 걸치게 하여 성을 공격했으며, 금나라 공격시에 배운 노포(弩砲)를 쏘아 성벽에 구멍을 낸 다음 성안으로 뛰어들었다.

일단 성을 점령하면 시민들을 모조리 무장 해제하여 시외로 내몬 다음 용병들은 시민과 분리하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시민 중에서 기술자는 몽골군 각 부대에 배속시키고 젊은 남자들은 다음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징발했다. 그리고 빈 성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전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성안을 지키고 있던 호라즘군은 몽골군에 당할 수 없었다. 대상을 약탈했던 오토라르 성주 이날추크는 붙잡혀 은을 녹여 눈과 코에 붓는 형벌을 당하였다. 징기스칸이 약탈자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나타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부하라시는 약탈 와중에 불길이 솟구쳐 목조건물은 대부분 소실되고 대성당, 궁전 등 벽돌건물만 남았다. 징기스칸은 폐허가 된 부하라를 뒤에 두고 자라후산(Zarafshan)강 끝까지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기 1220년 3월에 사마르칸트(Samarkand)에 나타났다. 이때 체베군과 차카타이 및 오고타이군도 사마르칸트에 집결했다.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 포위작전을 시작했다. 사마르칸트성내는 호라즘왕의 숙부 투카이 칸이 터키용병 약 5만명을 거느리고 수비하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성을 공격할 많은 포로를 거느리고 포로로 하여금 많은 깃발을 들게하여 부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포위 공격이 계속되어 제3일째 되는 날 몽골군은 처음 공격하다가 서서히 후퇴하여 성밖으로 공격해 오는 사마르칸트군을 기병으로 습격하여 적을 무찔러 성내 사람들을 공포에 떨도록 했다. 제4일째 이슬람교 성직자와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어 성문이 열리고 제5일째 몽골군이 성내로 들어와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시내를 약탈했다.

그러나 성내 성채에서 터키 용병들은 계속 완강하게 저항했다. 징기스칸은 먼저 성벽, 성루(城壘) 및 성문 등을 조사하고 성내로 흘러들어가는 수로를 막아 수공법(水攻法)을 사용하도록 했다. 성채를 지키던 호라즘병사 약 1천명이 야음을 타서 성을 빠져나가 달아났고 나머지 병사들은 이슬람 대성당 모스크에서 결사 항쟁했다. 그러나 결국 피살되고 말았다. 그러자 처음 항복했던 투가이 등을 비롯하여 이전에 항복했던 병사까지 모두 살육했다. 징기스칸은 배신행위를 지극히 싫어했던 것이다. 저항에 참여한 시민을 모두 학살하고 내성을 파괴했다. 사마르칸트를 완전히 점령하고 수공업자 3만명을 그의 자손과 부하에게 분배해 주었다.<sup>52)</sup>



〈그림〉 호라즘(Khorazm) 지역 전투(1220)

몽골군은 성을 점령하고 나면 마음껏 약탈하기 위해 시민을 시외로 몰아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이슬람교 장로, 성직자, 법률박사, 법관 등 수천명에 대해 보호령을 내리고 엄중히 지켰다.

## 나. 호라산, 코카사스 및 러시아 지역 전투

사마르칸트 점령후 곧이어 징기스칸은 세 아들 주치, 차카타이 및 오코타이에게 병력 5만을 주어 호라즘 수도 우르겐지(Urgench)를 점령하도록 하고 체베와 수부다이(速不臺)에게 기병 2만을 주어 호라즘왕을 추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사위 토크차르와 넷제 아들 투루이에게 메르프(Merv), 니샤프르(Nishapur)와 헤라트(Herat) 등 호라산(Khorasan)<sup>53)</sup>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게 했다.<sup>54)</sup> 그리고 징기스칸은 1220년 나사프(지금 카르시)에서 더위를 피했다.

호라즘 수도 우르겐지는 아무다리야강이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이고 방어가 견고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보올추, 톨룬 체르비(脫忽蘭 兒必), 카다안 등 노련한 장군을 보내 세 아들을 보좌하도록 했다. 주치는 아버지로부터 호라즘 본토를 영지로 약속받았으므로 희유책으로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몽골병은 포로를 시켜 성의 해자(壕字)를 묻게 하고,

공성장비를 동원하여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도시는 아무 다리아강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두 지구를 연결시키는 다리로 3천명의 몽골병들이 돌격해 나아가다가 모두 몰살당했다. 이 때문에 온건책을 주장하는 추지와 강경책을 주장하는 차가타이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다. 징기스칸은 화를 내며 두 형제는 오코타이 지시를 따르도록 지휘권을 일원화해 주었다.

공격은 다시 재개되어 몽골병은 집 하나 하나가 성채구실을 하는 집에 석유를 항아리에 넣어 던져 불지르면서 파상공격을 하면서 시가지를 한지역 한지역 점령해 나갔다. 7일후 수비군은 막다른 지역에 몰려 어쩔 수 없게 되자 사신을 보내 항복할 터이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되었다. 1221년 4월에 성이 완전히 점령되자 주치는 주민을 모두 들로 내보내고 기술자들을 몽골로 보내고 사내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았다. 끝으로 아무 다리아 독을 터트려 우르게지(Urgench) 전 시가지를 수장해 버렸다.<sup>55)</sup>

징기스칸의 사위 토크차르는 네사(Nessa : 현재 Ashkhabad 부근)점령하고, 1220년 11월에 니샤프르(Nisapur)를 공격하다가 화살 맞아 사망했다. 몽골군은 곧 철수했다. 투루이는 점령지에서 장정을 모집하여 부대를 재정비한 후 다시 7만의 몽골군을 이끌고 서기 1220년 가을에 지금 이란의 동부 호라산으로 진격하여 셀주크왕조의 수도 메르브(Merv : 지금 마리)를 서기 1221년 2월에 점령하고 12일간 행군하여 니샤프르에 나타나 매부의 복수전을 시작했다.

이때 몽골군의 공성술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창을 던지는 장치 3천, 노포(弩砲) 300, 석유에 불을 붙여 던지는 장치 700, 돌던지는 장치 2천5백, 그리고 사다리 4천을 동원하였다. 몽골군은 서기 1221년 4월 10일에 니샤프르를 완전히 점령하고 니샤프르 공격 중에 전사한 징기스칸의 사위 토크차르의 복수를 위해 시민들을 사흘간이나 살해하고 도시파괴는 10일간 계속되었다. 이렇게 살육한 사람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았다. 그러나 숨씨가 훌륭한 기능인 400명은 살려두었다. 다음에 헤라토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했다. 이때 헤라토 총독이 죽은 이후여서 헤라트 주민들이 시민의 안전을 조건으로 순순히 항복하자 투루이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후 투루이는 징기스칸에 합류했다.<sup>56)</sup>

그 동안 제베와 수부타이는 메르브성을 지나 1220년 6월 견고한 니샤프르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 투우스(현재 메셋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점령하고 호라즘 술탄 모하메드(Mohammed)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수부타이는 호라산 지방 북쪽에 있는 길을 따라 세부제바르(Sabzevar), 샤루드(Shahrud), 담칸(Damghan) 등을 거쳐 아라크(Arak)의 아제미로 들어간 다음에 쎄난(Semnan)을 지나 테헤란(Tehran) 근교에 있는 레이시(Rey : 테헤란 동남쪽 8킬로에 위치)에 도달했다. 제베는 카스피해 연안 마잔데란(Mazandaran)지방으로 들어가 아모르(Am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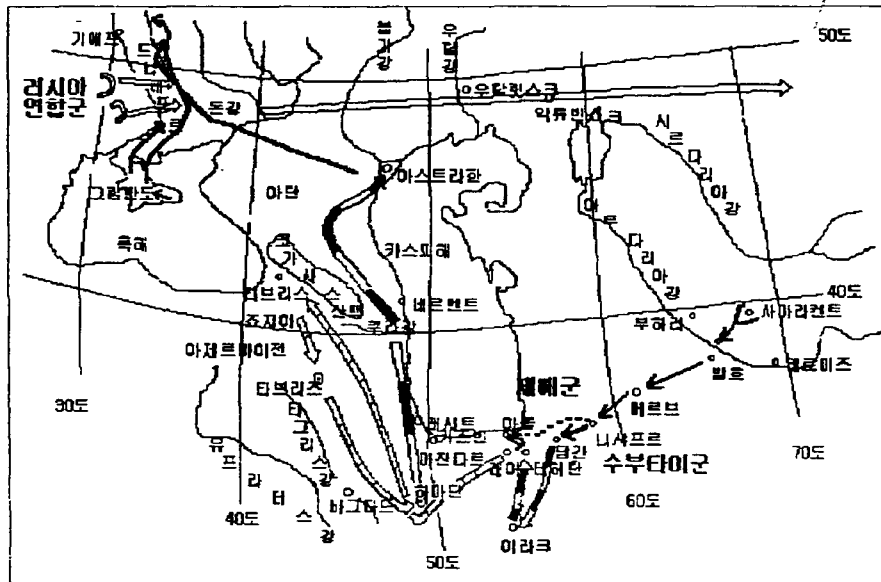
시를 점령하고 레이시로 내려와 두 부대는 다시 만났다. 술탄 무하메드는 레시프(Rasht)에서 다시 카즈빈(Qazvin)으로 가서 그의 아들이 병력 3만을 모아 왔으나 몽골군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성을 잃고 도주하는 생각만 했다.<sup>57)</sup>

술탄 무하메드는 바그다드로 도주할까 생각하다가 하마단(Hamadan)에서 몽골군이 바짝 따라 오자 생각을 바꾸어 카스피해 연안으로 도주했다. 그가 마잔데란에 이르렀을 때 몽골군이 알고 선발대가 추격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루칸강 하구에 있는 조그만 섬 아베스쿰(abaskun)에 몸을 숨겼으나 공포와 피로가 겹쳐서 1221년 1월에 사망했다. 대상을 살해하고 물건을 탈취한 죄값은 이렇게 치르어졌다.<sup>58)</sup>

술탄 무하메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징기스칸은 카스피해 동쪽과 북쪽을 정찰하고 돌아오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아제르바이젠 지방으로 들어가 타브리즈(Tabriz)를 점령하고 카스피해 연안으로 나아가 쿠라강 부근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루지아로 침입하여 수도 티프리스(Tiflis, 지금 Tbilis)에서 그루지아군을 무찔렀다. 다시 남으로 내려와 하마단을 잿더미로 만들고 1221년 가을에 그루지아로 다시 진입하여 카스피해 연안 저지대의 좁은 통로 데르벤트(Derbent)의 협로를 통과하여, 1222년 아스족(아란인)과 김착족을 무찌르고 러시아로 진출하여 키에프공, 체르니고프공, 가리치공 세영주가 이끄는 8만의 연합군을 1222년 5월 31일 드네프르(Dnieper)강 골짜기에서 만나 거짓 퇴각하여 적을 유인한 다음 북병으로 격파하는 전법으로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크림(크리미아)반도까지 진출했다가 볼가(Volga)강 하류를 건너고 다시 우랄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했다. 1224년에 지금 우랄리스크(Uralisk)와 악류빈스크(Aktyubinsk)부근에서 터키계 칸그리족을 정복하고 발하시호 남쪽을 지나 타루바가타이 지방을 거쳐 몽골로 돌아왔다. 정찰한 거리는 8,000킬로미터 이상이 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다.<sup>59)</sup>

징기스칸은 호라즘의 중심도시 사마르칸트를 점령하자 바로 무하메드 술탄을 추격하는 일면 전과확대작전을 실행하여 큰 전과를 올린 그 배후에는 몽골 특유의 정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하메드 출탄을 추격할 때 몽골군의 정보활동은 주도면밀했다. 이 추격전에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활용하였고, 현지인으로부터 술탄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잠제도<sup>60)</sup>를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징기스칸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지시를 받았다. 술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징기스칸은 제베와 수부타이로 하여금 카스피해를 멀리돌아 귀환하도록 했던 것은 몽골군이 현지 적응 능력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먼거리 보고 체계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몽골군은 얼마나 정으로 단단히 단결되어 있나를 니사푸르 전투에서 알 수 있다. 매부 도크차르가 전사하자 투루이는 철저히 준비하여 복수전을 처절하게 했다. 몽골군이 성을 공격하여 전사자가 많으며 점령후 철저히 복수했다. 그러나 피해가 없다면 주민들을 보호해 주었다. 니사푸루성과 헤라트성이 좋은 예이다.



(그림) 재배와 수부타이의 원정로(1221~1223)

몽골군은 전사하면 반드시 그 시체를 찾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루에 넣어 땅속에 묻는다. 서정(徐霆)이 보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군대에서 사망할 경우 만약 노비가 낙타로 죽은 주인의 목을 낙타에 싣고 온다면 주인의 가축과 재산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온다면 처와 노예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몽골군은 죽어도 고향에 돌아 갈 수 있다는 일념에서 더욱 용감하게 싸웠다.

### 다. 파르완 및 인다스강변 전투

사마르칸트를 함락시킨후 징기스칸은 1220년 여름 사미르칸트 남쪽 니사프(지금 Karshi)에서 더위를 피하고 가을에 아무 다리야강으로 나가 발흐(Balkh)<sup>62)</sup> 맞은편 도시 테르메르(Termez)

를 공격하여 11일만에 함락시켰다. 1221년 봄 아무 다리야강을 건너 발흐시를 점령하여 고대 박트리아 지역(현재 아프가니스탄령 투르게스탄)을 정복했다. 징기스칸은 무하메드 술탄의 아들 자랄 웃딘이 호라산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아들을 보내어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몽골군은 자랄 웃딘의 경로를 조사하여 사막을 넘어 추격했다. 몽골군은 네사(Nassa : Ashkhabad 부근, 호라산 서쪽에 있는 도시) 부근에 있는 카란다르(kharandar)성에서 술탄의 아들이며 자랄웃딘의 두 동생 우즈라그 샤푸(Uzlagh Shah)와 아쿠샤(Akhu Shah)를 만나 교전 중에 패주하는 척하여 그들이 승리했다고 방심하는 틈에 급습하여 두 왕자를 죽였다.<sup>63)</sup>

징기스칸은 발흐와 타레칸(Talecan) 함락후 1221년 여름 박트리아 산지에서 여름을 보내고 파로포미사스(Paropamisus)산맥이 힌두쿠시(Hindukusi)산맥과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하는 군사적 요충지인 바미얀(Bamijan)을 공격했다. 바미얀 공격시 차카타이 아들 무츠겐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징기스칸이 직접 독려하여 바미얀시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파괴하고 모두 살육했다.

. 호라즘 황태자 자랄 웃딘은 바미얀 동남쪽 500km에 있는 가즈니(Ghazni)에 몸을 피했다. 자랄 웃딘은 그곳에서 터키 용병과 아프가니스탄 토민들을 모아 7만명의 기병을 구성했다. 징기스칸은 4만5천명의 군사를 주어 시기 쿠두크(忽都忽)로 하여금 정벌토록 했다. 시기 쿠두크는 징기스칸이 자랄 웃딘을 감시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카불(Kabul)과 자부리스탄(Zabulistan) 사이 힌두쿠시 산악지역에 3만명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 분견대가 파르완(Parwan) (아프가니스탄 남쪽 루가르(Logar)강 원천이 있는 지역)에서 자랄 웃딘군을 만나 패했다는 소식을 접수받고 시기 쿠두크는 전군을 이끌고 파르완 평원으로 나아가 자랄 웃딘군과 대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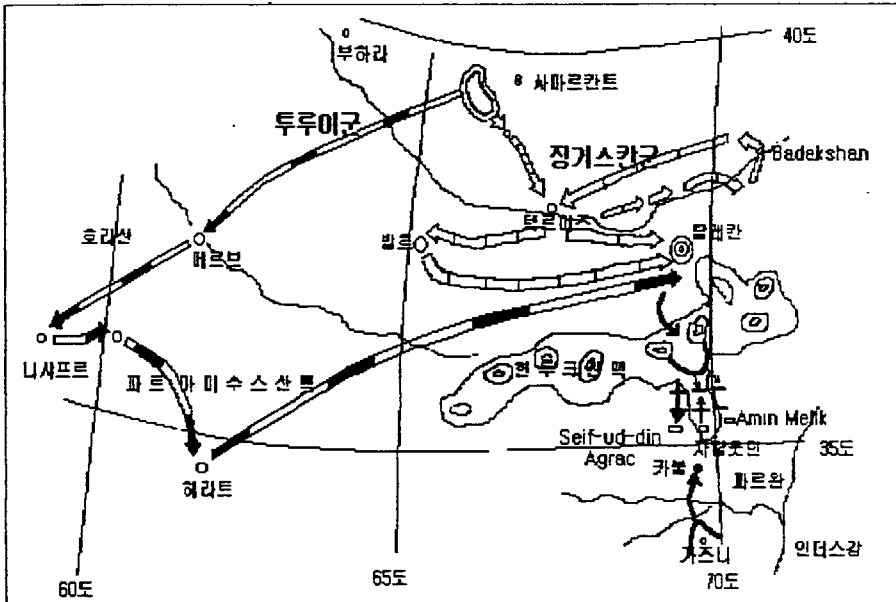
자랄 웃딘은 중앙을, 우익은 아민 아루 마리크(Amin Al Malik), 그리고 좌익은 아그라크(Seit-ud-din Agrac)를 배치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자랄 웃딘군의 우익은 1만 정도의 몽골군을 돌파했다. 급히 시기 쿠두크는 중군으로 좌익을 도와 전열을 간신히 회복했다. 이후 자랄 웃딘군과 시기 쿠두크군은 파르완 평원에서 서로 돌격하면서 싸웠으나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래서 밤이 되어 각각의 진지로 돌아갔다. 시기 쿠두크는 몽골군의 수가 적보다 적었으므로 밤 사이에 예비 말에 인형을 태우고 다음날 아침 전투대형을 갖추고 지원병이 도착한 것처럼 꾸몄다. 자랄 웃딘은 기병들에게 허리띠에 말고삐를 묶도록 하여 전투대형을 갖추고 몽골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몽골기병은 적진으로 돌격했으나 빗발치는 화살로 사상자가 속출하여 진영을 재정비하려고 일단 뒤로 물러섰다가 재차 공격하자 자랄 웃딘의 진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때 자

랄 웃딘은 나팔을 불게 했다. 그러자 호라즘군은 대형을 넓히면서 몽골군을 양익으로 포위할 듯이 덤벼들었다. 시기 쿠두크는 군기를 잡고 지휘했으나 몽골병은 군기를 보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다가 평지에 패인 홈에 말발굽이 빠져 말과 사람이 같이 나뉘어떨어지면서 추격하는 적의 휘두르는 칼에 맞아 태반이 죽음을 당했다.<sup>64)</sup>

파르완 전투는 몽골군이 패한 최초의 전투였다. 징기스칸은 파르완의 패배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시기 쿠두크는 너무 승리만 하여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실패의 교훈을 잘 살려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리고는 징기스칸은 2일간에 걸쳐 병사들이 식사를 끓여먹을 틈을 주지 않고 서둘러 파르완으로 향했다. 파르완에 도착하여 먼저 쿠두크로부터 양군 진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징기스칸은 쿠두크의 작전방법이 나빴음을 꾸짖고 전쟁터의 선정도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전쟁 패인이 쿠두크의 지휘잘못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sup>65)</sup>

징기스칸은 서기 1221년 가을에 호라즘에서 귀환한 주치, 차카타이 및 오고타이와 호라산에서 돌아온 투루이와 함께 가즈니(Ghazni)로 급히 진격했다. 모하메드의 아들 잘라 웃딘이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 이곳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징기스칸은 가즈니에 도착하니 이미 자랄 웃딘은 그곳에 없었다. 자랄 웃딘은 대승이후 전리품을 서로 다툼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병과 터키병과의 불화로 병력들이 모두 흩어져 가즈니를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인도국경을 넘어 편지압 지방으로 달아나려 했다. 징기스칸은 자랄 웃딘군이 인더스(Indus)강을 건너 도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급히 추격하여 밤중에 인더스강 가까이서 적의 후위를 만나 격파했다.

서기 1221년 11월 24일 인더스강을 배후로 몽골군과 자랄 웃딘의 호라즘군이 결전을 벌였다. 자랄 웃딘은 우익에 정예 이슬람군을 배치하고 용장 아민 아르 말릭이 지휘하에 인더스강을 따라 몽골군 우익을 공격하도록 했다. 징기스칸은 반월형(半月形)으로 진형을 갖추고 여러겹으로 종대를 이루어 자랄 웃딘군을 포위했다. 달이 밝아 전투는 계속되어 몽골군은 자랄 웃딘군을 초생달모양으로 겹겹이 쌓고 인더스강으로 조여들자 자랄 웃딘군은 본의 아니게 배수진이 되어 버렸다. 징기스칸은 적의 우익이 강함을 알고 먼저 적의 우익을 집중공격하자 아민 아르 말릭의 우익은 거의 전멸하고 아민 아르 말릭은 판지압지방으로 도주해 버렸다. 날이 밝자 몽골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랄 웃딘은 700명 정예부대로 중앙을 수비하도록 하면서 포위망을 뚫으려고 전후좌우를 돌격하면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육박전(肉薄戰)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정오가 되어 자랄 웃딘은 포위를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음을 알고, 등에 방패를 매고 손에기를 들고 인더스강까지 말을 달려가서 20척(6미터)이나 되는 절벽에서 말과 함께 인더스강의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헤엄쳐서 인도 쪽으로 도망해 버렸다.<sup>66)</sup>



〈그림〉 파르완(Parwan)평원 전투(1221)

징기스칸은 도망하는 자랄 옷딘을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다가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배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격을 중지했다. 징기스칸은 인더스강 우안으로 북상하여 서기 1222년 봄 힌두쿠시 산중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해에 발라 노얀(八剌)이 인더스강을 넘어 몰탄(Multan)과 라흐레(Lahore)를 유린하면서 자랄 옷딘을 추격했으나 너무 더워 탐색을 포기하고 돌아왔다.<sup>67)</sup>

징기스칸은 자랄 옷딘이 다시 재기해 쳐들어 올 것에 대비하여 1222년 봄에 오고타이를 시켜 가즈니를 토벌케했다. 오고타이는 가즈니를 파괴했다. 헤라트시에서 자랄 옷딘이 파르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몽골군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에르지기데이(Ilchigidei)를 보내 오고타이를 증원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집요하게 저항했으나 1222년 6월14일 헤라트(Herat)는 에르지기데이 부대에 의해 함락되고 철저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1주일 동안에 학살되었다. 메르프(Merv) 그리고 발호호시도 파르완 승리의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징기스칸이 보낸 5천명의 두루바이부대에 의해 다시 점령되어 파괴되었다.

징기스칸은 1222년 여름을 바그란(Baghraan)에서 보내고, 1222년 가을에 발호를 약탈하고 부하라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듣고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서기 1222년 겨울에

사마르칸트에서 쉬었다. 이때 이슬람교도 마후무드 야라와치와 마수우드 야라와치 부자가 우르겐지에서 징기스칸을 만났다. 그들은 터키인으로 이슬람정치체제에서 법률가이며 정치가였다. 그들은 징기스칸에게 도시인이 정복자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도시를 파괴하기 보다 행정법으로 다스리면 정복자에게 큰 이익이 됨을 설명했다. 징기스칸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두 사람을 신하로 삼아서 호라즘지역의 여러 부하라, 사마르칸트, 카쉬카르 등 여러 도시를 다스리도록 했다.<sup>68)</sup>

서기 1223년 봄에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여 그해 여름을 타시켄트에서 가까운 크란바시(Qulan Bashi)<sup>69)</sup>에서 보내고 가을에 이르티시강 상류에 머물러 있다가 1224년에 다시 출발하여 1225년 봄에 투우라강가(지금 울란바토르 지방)에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남러시아를 원정하고 돌아오는 체베<sup>70)</sup>와 수부타이군과 합류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부당하게 재물을 약탈하거나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할 때 철저히 잔인하게 복수하였다. 호라즘 전투에서 몽골군은 기술자들을 우대하여 즉시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요새를 공격하는 잔인성을 보여주었다. 성을 지키고 있던 호라즘 시민들은 그들의 동족이 몽골군 선두에 서서 성의 해자를 메우고 공성기를 옮기자 동족에게 활을 쏠 수도 없어서 참담한 마음으로 성을 사수하려는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앙을 끌어들이는 호라즘 샤 아라우드 딘 모하메드(Alaud Din Mohammed, 1119~1220)는 첫째, 너무 사리사욕이 많아서 이웃 이슬람족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며, 둘째, 몽골사절단과 상인들을 이유없이 약탈하고 살해하여 벌써 왕으로서의 도덕성을 잃었으며 징기스칸의 공격 구실을 주었다. 셋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굴다가 몽골군을 만나자 우유부단하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으며, 넷째, 전략과 전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각 도시에 많은 병력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이를 집중시켜 몽골군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각 도시와 성을 그 지역군인과 주민에게 맡겨 굳게 지키기만 하다가 몽골군의 집중공격을 받아 차례차례 모두 패하고 말았다.

징기스칸은 서기 1218년에서 1224년에 이르는 7년간의 서정(西征)을 마치고 서기 1225년 몽골로 개설했다. 귀국 즉시 그는 금국(金國)정벌에 나서려 했다. 그래서 서기 1225년 겨울에 대군을 일으켜 금국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야율초재(耶律楚材)는 금국정벌의 시기가 아님을 건의하여 정벌은 중지되었다.

## 7. 西夏地域 전투와 징기스칸의 유언

1219년 징기스칸이 호라즘정벌에 나설 때 서하왕에게 원병 차출을 요청했으나 서하왕은 몽골을 지극히 싫어한 나머지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 서기 1226년에 징기스칸은 서하(西夏, 탕구트)로 침입했다. 침입도중에 한가 한 틈을 타서 비탈진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 토론 체르비가 원정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으나 징기스칸에 의해 거절되었다. 징기스칸이 서하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서하의 대신 아샤감부는 도발책임을 한 몸에 지고 징기스칸에게 도전했다. 몽골군은 1226년 3월 예친 고르에서 서하로 쳐들어가 감주(甘州: 지금 張掖)와 숙주(肅州: 지금 酒泉)을 점령하고 여름 주둔지를 산위에 설치하여 쉬고 가을에 동쪽으로 나아가 양주(涼州)를 점령했다. 서하의 대신 아샤감부군을 아라산 산맥에서 격파하고 서하인을 닥치는대로, 마음대로 처치하라는 명령이 내려 졌다.

이때 야율초재는 비옥한 땅과 숨쉴만한 주민들의 가치를 역설하고 주민을 보호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파괴하여 살육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징기스칸은 야율초재로 하여금 규칙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오고타이는 무장 차간(察罕)을 사령관으로 하여 1226년에 금나라로 진입하여 금의 기병을 제압하고 위수(渭水)를 따라 서안(西安)까지 이르러 변경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자 겁을 먹은 금제(金帝)는 사신을 보내 화의를 청하여 1226년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후 징기스칸은 서하(西夏)만 공략할 때 우려되는 배후 위협을 제거했다.

징기스칸은 몸이 계속 쇠퇴했지만 서하 정벌을 재촉했다. 1226년 11월에 영주(靈州: 연대기에 도루메게이로 표시된 도시)를 공격하여 서하의 원군을 평원에서 격파하고 12월에 영주를 점령했다. 징기스칸의 보조군은 수도 영하(寧夏: 지금의 銀川)<sup>71)</sup>를 포위했다. 징기스칸은 주력군을 이끌고 하주(河州: 蘭州 서남쪽 100킬로 되는 지역)를 공략했다. 그리고 3월에 서녕(西寧)을 함락했다. 4월에 육반산(六盤山)으로 병력을 이동했다. 그리고 여름 더위를 피했다. 서하왕 이현(李峴)은 화의를 청했으나 거절되고 서하왕의 처형은 토론 체르비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결국 영하성은 함락되고 서하왕 이현(李峴)은 항복했다. 그래서 서하는 망하고 말았다. 1227년 2월 장남 주치는 아랄해 북쪽 영지에서 병사했다. 징기스칸이 서하를 점령한 이유는 배반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금국의 서쪽을 노출시켜 차후 금정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하를 항복받은 후 징기스칸은 더위를 피하여 육반산(六盤山)에 머물며 재발한 병을 조리했다.

징기스칸은 중병으로 사망하기 전 금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죽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아들 오고타아와 투루이 및 제장을 모아놓고 금나라를 점령하는 방안을 유언하고 병사했다. 유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은 정예군을 동관(潼關：陝西, 山西, 河南 三省의 요충지)에 배치하여 남으로 연산(連山)을 방패로 하고 북으로 황하를 장애물로 하고 있어 쉽게 격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공략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송(宋)과 금(金)은 앙숙간이다. 송나라에게 길을 빌리면 송은 길을 빌려 줄 것이고 이 길을 따라 남쪽에서 변경(汴京)을 급습하면 금은 동관에 있는 정예주력을 구원차 변경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동관에서 변경까지 길은 멀어서 인마(人馬)는 지쳐 태반을 상실할 것이므로 쉽게 깨뜨릴 수 있으리라. 그것을 알면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다.”

징기스칸은 서기 1227년 8월 18일 감숙(甘肅)의 야영지에서 66세(일설에 73세)로 생애를 마쳤다. 서기 1232년 뒤를 이은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칸은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켰다. 오고타이칸은 산서(山西) 방면에서 남하하여 황하를 건너 변경으로 진격하고, 송나라와 제후를 요청하고 금을 멸망시키면 황하 이남을 송나라에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이때 송조정에서는 조범(趙范) 한 사람만 반대하고 모두 찬성하였다. 오고타이칸의 동생 투루이는 동관 서남쪽을 돌아 남송 영토를 지나 하남성(河南省) 남단에서 출발하여 남쪽에서부터 금의 수도 변경을 육박하였다. 이때 변경 포위전의 사령관은 수부타이(Subtai：速不台)였다. 그러나 변경성은 북송 때부터 수도여서 외호(外壕)와 내호(內壕)로 둘러싸여 견고했다. 금군(金軍) 6만명이 성벽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고 신무기인 진천뢰(震天雷)를 폭발시켜 몽골군을 놀라게 하였다. 3개월간의 공방전에 성내 무기, 식량이 떨어지고 여름철이라 장티푸스가 만연하여 금제 애종(金帝 哀宗)은 변경성을 탈출하게 되었고, 뒤이어 1234년에 금의 수도 변경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 전투는 징기스칸의 유언이 그대로 적중한 전투였다.

## 8. 징기스칸의 전투 결과 분석

지금까지 징기스칸이 지휘한 전투를 중점적으로 훑어 보았다. 여기서 각 전투에서 징기스칸이 조치한 주요 내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중도전투

(1) 금나라를 침입하기 전에 장성 가까이 있는 옹구트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요나라 사람들이 귀순해오자 그들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2) 중도 전투에서 변보외장성을 점령하여 금나라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으나 몽골군은 기마병이어서 요새를 수비하는 데는 부적합으로 마초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 철수해 버렸다.

(3) 징기스칸이 부상당하여 철수하면서도 요동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역의 거란인이 귀순해 오자 제베로 하여금 탈취하게 하여 동쪽의 위협을 제거했다.

(4) 금군은 장성과 요새진지에서 수비함으로 측면을 우회하여 후방을 교란시켰다.

(5) 중도를 포위하여 성을 넘기 힘들자 하북지역을 소탕 및 약탈을 하여 금제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유도했다.

(6) 중도 고립되었으나 몽골군이 사상자가 많을 것을 우려하여 선뜻 금제의 화의를 받아들였다.

## 나. 호라즘 전투

(1) 먼저 호라즘을 침입하기 전에 호라즘 가까이 있는 터기제 아루스란왕, 카루루크왕, 위구르왕 바르추크, 그리고 아루마리크왕 수크나크 데긴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종군하도록 했다.

(2) 4개군 1개 별동대로 시르 따리아강 전면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징기스칸 자신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르 따리아강을 도하하여 현지 주민의 안내를 받아 부하라 및 사마르칸트성을 배후공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린 후 공격했다.

(3) 공성을 할 때 적지역의 포로들을 동원하여 해자를 메우거나 공성장비를 이동시키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최전선에서 싸우도록 하여 적이 자기 백성들과 싸우도록 하여 적의 전의를 감소시키도록 했다.

(4) 이슬람교장로, 성직자, 법률박사, 법관 등 수천명에 대해 보호령을 내리고 엄중히 지켰다. 그래서 그 지역 통치에 활용했다. 그리고 기술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활용하도록 했다.

(5) 징기스칸은 4개군 1개 별동대가 최종적으로 사마르칸트에 합류하도록 하는 전장내 집중하는 전략을 호라즘 전투에 사용하였다.

(6) 전투에 완전히 승리하자 그 여세를 몰아 4개 군으로 편성하여 제베, 수부타이군은 무하메드를 추적하도록 하고 주치, 차가타이, 오코타이군은 호라즘 잔여 지역을 소탕하게 하고 투루이는 무하메드 아들이 준동하는 호라산을 소탕하도록 하여 전무후무한 전과 확대를 하였다.

(7) 전과 확대 기간중에 잠제도(역마제도)를 활용하여 징기스칸은 예하 부대의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 다. 파르완과 인더스 강변 전투

(1) 파르완 전투지역을 둘러보고 시키쿠두크에게 전투지역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을 보면 징기스칸이 전투시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징기스칸은 孫子兵法에 나오는 攻其無備 出其不意 戰法<sup>73)</sup>을 최대로 활용했다. 그래서 자랄웃단을 추격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급히 추격하여 적이 예상하지 않는 시기와 장소에서 적을 급습했다.

(3) 적을 포위할 때도 적이 한 곳에 집중하여 돌파할 것에 대비하여 전열을 여러 겹으로 하여 포위망을 좁혀 나아갔다.

(4) 파르완과 인더스강변 전투는 징기스칸의 작전과 전술이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전투였다.

## 라. 西夏(탕구트) 전투

(1) 징기스칸은 배반자는 철저히 응징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 전투가 서하정벌이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하정벌에 나서서 자기가 죽은 후에 서하왕을 죽일 임무를 사랑하는 부하에게 맡겼다.

(2) 서하공격도 바로 수도로 진격하지 않고 금나라와 서하 국경지대로 우회하여 공격하였다.

(3) 임중하면서 아들에게 금나라의 수도 변경을 송나라 영토를 빌리어서 우회하여 배후에서 공격하도록 유연하였다. 그는 우회 기동 배후 기습공격의 귀재였다고 할 수 있다.

## 마. 전투 외의 행동

(1) 징기스칸은 모든 신들을 존중했다. 최초 금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불칸산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호라즘 점령후 이맘(이슬람 승려)이 경전을 설교하도록 했다. 장춘(長春) 도인을 사마르칸트에 초청하여 도교 진리를 들었다. 징기스칸은 그 지역의 종교를 존경하여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2) 배반과 강탈은 철저히 응징했다. 오토라르 성주가 강탈했기 때문에 서정(西征)길에 올랐고 서하가 서정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서하를 멸망시켰다.

(3) 징기스칸은 글을 몰랐다. 위구르인 타타통가로부터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종전 말로만 하던 작전지시를 문자를 사용하여 전달하도록 했다. 마후무드 야라와치와 마수우드 야라와치 부자가 우르겐지에서 징기스칸을 만나 도시인이 정복자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도시를 파괴하기보다 행정법으로 다스리면 정복자에게 큰 이익이 됨을 설명했다. 징기스칸은 그들의 말을 받아 들었다. 그들에게 그 방법을 실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서하정벌시 야울초제는 비옥한 땅과 일하는 주민들의 가치를 역설하고 주민을 보호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파괴하여 살육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징기스칸은 곧 규칙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4) 징기스칸은 부하들이 전리품을 착복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화를 냈을 뿐이고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과를 올리면 곧 상을 주고 직위를 올려 주었다. 징기스칸은 부하를 의심하여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5) 정복지역의 기술자를 살려주고 우대하여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금나라 정벌시 공성법과 수공법을 배우고 호라즘 공격시 공성기, 투석 제작 그리고 항아리에 석유를 넣어 던지는 법을 배워 활용했다.

(6) 징기스칸은 기예와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세우델이 몽골 역사를 잘 암기하여 이야기를 했고 토크투아는 세우델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노래했다. 야룰초제는 천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지식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독서를 대신했다.

(7) 징기스칸은 그 지역의 지식인을 존중하고 종족에 상관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등용했다. 심지어 전쟁에까지 그 지역 사람을 동원하여 싸우도록 했다. 특히 상인들을 보호하여 이슬람 상인들은 징기스칸을 도왔다. 실제 서아시아 정보는 상인들로부터 얻은 것이 많았다.

## 9. 결 론

징기스칸은 기마병(騎馬兵)의 기동성을 이용한 전략적(戰略的), 전술적(戰術的) 부대기동(部隊機動)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대를 우회 기동으로 적을 각개 격파하여 적의 병력이 집중할 틈을 주지 않고 전장(戰場)에서 집결(集結)하여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전력의 우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몽골군은 호라즘 전투에서 광정면 기동을 하여 예약된 시기와 장소에 합류했다. 전과 확대를 위해 다시 헤어졌다.

징기스칸은 기동의 이점을 살려 적의 주력이 있는 곳을 우회하여 적의 배후를 공격했다. 그래서 적이 혼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틈을 주지 않고 포위 공격하여 섬멸했다. 금나라 공격시 징기스칸은 제베로하여금 거용관을 배후에서 공격하게 하였으며,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도 배후에 갑자기 나타나 적의 허를 찌른 전투였다. 그래서 전략가 리델 하트<sup>74)</sup>는 몽골군은 배후공격을 개척했다고 주장했다.

징기스칸은 몽골군의 광범위한 첩보조직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 제도는 잠재도로 발전하여 적정보뿐 아니라 자기 부대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지휘하였다. 다시말하면 13세기형 Internet정보망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첩보조직은 효과적인 정보를 징기스칸에게 제공하는 한편 적 국민들에게 몽골군의 우수성을 선전했기 때문에 몽골군이 접근하기 전에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징기스칸은 사전에 기동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한 후에 통상 3개 종대 대형으로 신속하게 목표지점으로 진격하되 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종대 측면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신속한 3열 종대형 기동은 적 배후를 찌르는 효과를 얻어 순식간에 적을 무력화하였다.

또한 징기스칸은 몽골군이 기병전에는 능하나 공성전, 보병전, 또는 요새전에 취약함을 알고 현지에서 능력있는 기술자를 우대하여 사용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지역에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자는 죽이지 않고 포로로 하여 본국으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활용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전술과 무기를 신속하게 배워 활용하였다.

징기스칸은 대상(隊商, 상인)들을 보호하여 오늘날과 같은 유통체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그

래져 몽골군이 가는데는 항시 상인이 들끓었고 몽골군은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다. 예를 들어 제배와 수부타이가 러시아에 침공하여 러시아연합군을 무찌른후 크리미아반도에 들어가 제노아상인을 접견한 사실을 참고한다면 징기스칸이 얼마나 상인들을 보호했는가를 알 수 있다.

징기스칸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으나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바른 판단을 내렸다. 점령지역의 지도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고 그 지역의 종교활동을 존중해 주었다. 부하라에서는 코란경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여 경청했다. 중국의 도교 철인 장춘(張春)의 말을 경청했다. 야라와치 부자와 야울초재가 파괴보다 행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바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결심권자로서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거란인 야울야해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만호(뒤에 요왕으로 임명)를 부여했고, 중도전투에서 야울초재를 등용하여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페르시아인 알라와디(阿剌瓦而思)에게는 재정업무를 맡겼다. 그가 점령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귀순한 우수한 인재는 발탁하여 활용할 줄 아는 혜안(慧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큰 야심을 지닌 대정복자라고 하지만 실제 징기스칸은 어려서 부터 생존하기 위해 현실에 적응해나가는 소양을 터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갔다. 몽골 통일후 금나라가 부당하게 조공을 요청하자 금정벌에 나섰고 여기서 중국의 보병전과 요새전을 터득하고 무카리로 하여금 중국의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오토라르성주가 대상을 죽이고 사신에 대해 무례한 행위를 하자 호라즘국을 침입했고 이 나라를 정복하자 즉각 전과 확대를 하였다. 이때 역시 현지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서하왕 이현이 배반하자 서하를 공격하다가 몸을 다쳐 죽음에 이르렀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하정벌을 계속했다. 그는 서하왕의 배신을 철저히 응징하는 반면에 금나라를 정벌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면에서 징기스칸은 현실에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현실에 잘 적응하기 위해 몽골인의 부족함을 다른 인종의 우수한 사람을 발탁하여 우대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일찍이 노자(老子)는 “남을 아는 자는 똑똑하다 하고(知人者 智) 자기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고 한다(自知者 明).”라고 했는데, 징기스칸은 자기와 자기 민족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민족의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지장(智將)임과 동시에 명장(明將: 현명한 장군)이었다.

## 註 記

- 1) 몽골비사를 보면 에스게이가 호에른을 납치할 때 이미 결혼하여 아들이 있었다고 보는 몽골 학자들이 많이 있다.
- 2)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해안, 서울, 1994, 76절과 77절, pp. 54-56.
- 3) 上揭書, 90절-92절, pp. 62-63.
- 4) 上揭書, 102절-111절, pp. 68-77.
- 5) 上揭書, 202절 p.177, 18번째 千戶.
- 6) 上揭書, 17번째 千戶
- 7) 上揭書, 16번째 千戶
- 8) 上揭書, 15번째 千戶
- 9) 上揭書, 138절 p.102. 214절 p.191.
- 10) 上揭書, 52번째 千戶
- 11) 上揭書, 2번째 千戶
- 12) 上揭書, 8번째 千戶(칭기스칸 손자 쿠빌라이와 同名異人)
- 13) 上揭書, 48번째 千戶
- 14) 上揭書, 119절, 120절, 147절, pp. 84-85, pp. 109-110.
- 15) 司馬遷, 「史記」, 匈奴列傳
- 16) Edward Gibbon 저, 김진영 역, 「로마제국쇠망사 IV」, 대광서림, 1993 5, pp. 207-214.
- 17) 前揭書, 司馬遷.
- 18) 「元史」, 卷98, 志第46, 兵一, 兵制.
- 19) 말이 앞뒤 오른 다리 윈다리를 번갈아 들면서 뛰는 것을 의미한다. 조로몰이 뛰기를 하면 말등이 수평을 유지하여 기수가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고, 멀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다.
- 20) 마르코 폴로 著, 鄭雲龍譯, 「東方見聞錄」, 第1篇, 第54章, 을유문화사, 1967.
- 21) 彭大雅著, 徐霆(宋나라 학자) 疏 黑婦事略.
- 22) 마르코 폴로 著, 前揭書, 第2篇, 第26章

- 23) Lamb HeraldM著, 강영규 譯註, 「징기스칸」〈원명, *Genghis Khan The Emperor of All Man*〉, 현실과 미래, 서울, 1998, pp.244-246.
- 24) 蔣中正, 「中國歷代戰史」, 第六編(11) 三軍聯合參謀大學, 1972, pp.216-218.
- 25) 前揭書, 유원수, 202절, p.177, 3번째 千戶.
- 26) 上揭書, 9번째 千戶.
- 27) 國防軍史研究所 譯, 「歷代兵要(V)」, 軍事文獻集16, p.14.
- 28) 「金史」, 本紀 13 衛紹王.
- 29) 「元史」, 卷119, 列傳 第6, 木華黎.
- 30) 「元史」, 卷一, 本紀 第一, 太祖, 7年.
- 31) 「金史」, 卷13, 本紀 第13, 衛紹王, 3년 11월.
- 32) 「金史」, 卷13, 本紀13, 衛紹王, 3년, 10월, 11월, 國防軍史研究所 譯, 歷代兵要(V), 軍事文獻集, p.117.
- 33) 호사호(胡沙虎, 일명, 紇石烈)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 34) 元史, 卷一, 本紀, 第一, 太祖 7年.
- 35) 1212년 여름 동안의 전투에 관한 기록은 金史와 元史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중에는 공성전과 포위전으로 지구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 36) 蔣中正, 中國歷代戰爭史, 第6卷(11), pp.209-210.
- 37) 元史, 卷1, 本紀, 第一, 太祖, 6年 12월.
- 38) 元史, 卷一, 本紀, 第一, 太祖 8年.
- 39) 金史, 本紀, 第十三, 衛紹王, 永濟.
- 40) 金史, 本紀, 第十三, 衛紹王, 永濟.
- 41) 元史, 卷1, 本紀, 第一, 太祖, 8年 秋.
- 42) 元史, 券一, 太祖, 第一, 태조 9년.
- 43) 元史, 太祖, 14年.
- 44) 서기1077년에서 1231년까지 존속한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샤(Khwarizm Sah) 왕조의 7대 술탄이며 1199년에서 1220년까지 왕으로 있으면서 징기스칸에 패한 후 카스피해 섬까지 도주했으나 병으로 사망했다.
- 45) D'Ohsson著, 佐口透譯註, 「モンコル帝國史 I」(全6卷), 東京:平凡社, 1968, pp.192-194.

- 46) 前掲書, 유원수역주, 202절, p.177, 26번째 千戶.
- 47) 上掲書, 31번째 千戶.
- 48) 上掲書, 24번째 千戶.
- 49) 라시드 우츠딘著, 余大鈞, 周建奇 譯, 「集史」, pp.277-279.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196-197. Grousset, Rene 著, 李圭植 譯, 정기스칸  
 (원명, *Le Conquerant du Monde: Vie de Gengis-Khan*(세계의 정복자-정기스칸의 생  
 애), Albin Michel, Paris), 서울: 韓國出版社, 1986, pp.265-270.
- 50)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197-198.
- 51) 上掲書, pp.197-198.  
 前掲書, Grousset, Rene著, pp.271-274.  
 前掲書, 라시드 우츠딘 著, pp.280-284.
- 52)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203-205.  
 前掲書, 라시드 우츠딘 著, 余大鈞, 周建奇 譯, pp.284-287.
- 53) 페르시아어로 오리엔트라는 뜻으로 카스피해 남동쪽 일대의 지역.
- 54) 元史, 太祖, 16年.
- 55)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230-234.  
 前掲書, 라시드 우츠딘著, 余大鈞, 周建奇 譯 pp.295-299.
- 56)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248-250.  
 前掲書, Grousset, Rene著, 李圭植 譯, pp.293-295.
- 57)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210-216.  
 前掲書, 라시드 우츠딘著, 余大鈞, 周建奇 譯 pp.287-295.
- 58) 上掲書, pp.217-219.
- 59) 上掲書, pp.208-209.  
 前掲書, Grousset, Rene 著, pp.323-330
- 60) 정기스칸 시대 잠(Jam)제도는 13세기 Internet이라고 할 수 있다.
- 61) 前掲書, 彭大雅著, 徐鑫.
- 62) 발흐는 고대 박트리아 수도였으며, 현재 Wazirdad이다.
- 63)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228-229.

64) 上掲書. pp. 259—261.

前掲書, 라시드 우즈딘 著, 余大鈞, 周建奇 譯, pp. 304—305.

65)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 262—263.

66) 上掲書, pp. 262—267.

前掲書, 라시드 우즈딘 著, 余大鈞, 周建奇 譯 pp. 306—308.

67) 前掲書, D'Ohsson著, 佐口透 譯註, pp. 262—267.

前掲書, Grousset, Rene著, pp. 299—300.

68) 前掲書, 유원수, 263절 p. 239.

69) 타쉬켄트지방 지루지구계곡에 위치

70) 제베는 西征 직후 또는 귀환중에 사망했다는 설이 있음.

71) 아분 알 아필의 연대기에는 에리카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예구리가이아라로 표기

72) 元史, 太祖, 22年 7월.

73) 孫子兵法, 始計篇.

74) Lidell Hart著, 森澤龜鶴 譯, 「世界史の名將たち」, 東京: 原書房, 昭和55. pp. 1—25(原名 *Great Captains Unveiled*, Books for Libraries Press, New York, 1967.).